

사람

마을을 품다 



2018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사람

마을을 품다 

2018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여는글

얼마 전 삼양동 풀뿌리 주민운동의 역사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20여 년 전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함께 돌보기 위해
공부방을 만들었던 이야기, 샅타를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연대했던 이야기,
돌봄육아에 대한 주민들의 정책요구 현수막이 붙은 마을운동회 사진 등을 듣고 보았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금 마을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나의 욕구에서 출발, 마을에서 나를 찾기, 더불어 사는 삶,
복적복적 재미있어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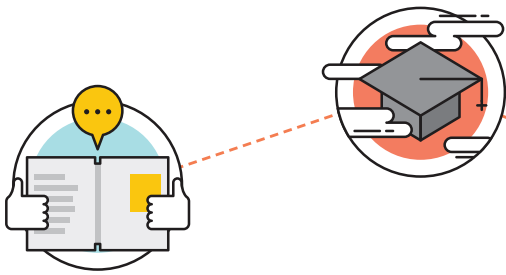
작년에 작은연구로 마을지원활동가 그룹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마을공동체의 지향에 대해 나온 답변들입니다.
결국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향은 20여 년 전의 삼양동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경험,
마을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성장스토리,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관계의 깊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소중합니다.

올해 강북구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50+마을기록가 다섯 분이
38명의 마을활동가를 만나 인터뷰를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은 3개월간의 기록과정을 함께 해주신
임우택, 박주리, 김성덕, 김홍복, 이영란, 다섯 분의 마을기록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뷰에 성심껏 답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마을활동가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자가 연대와 협력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을기록으로
활동을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영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2018년 12월

마을기록가 교육 51시간

구술기록 490시간



제작회의 38시간



만남 사람들 38명



사람,
마을을 품다
여정



마을기록가를 소개합니다

50+ 지역의 문을 열다

‘똑똑똑’

50+마을기록가분들이 강북구 마을공동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8년 9월~11월, 강북구 곳곳을 누비며
마을공동체 활동 중인 분들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5명의 마을기록가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김성덕

나의소개 마을기록가로 강북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나아지는 마을을 생각할 때 보실 만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상깊은 점 강북구의 성장을 이끄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 역사문화 연구, 공연,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계셨습니다.

독자에게 한마디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모르셨던 분이라면, 이 책자를 통하여 강북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확인하시고 동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강북 주민 생활의 생태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소개 너무 암전해 아무것도 못 할 것만 같았던 성격이었는데 56년의 세월을 잘 이겨내고 성장해서 이제는 건강만 허락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김홍복입니다.

김홍복

인상깊은 점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활동하면서 마을공동체 공간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이웃을 알게 되고 경험한 것이 좋았고 이것이 더 나은 나의 제2의 전성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독자에게 한마디 제가 아는 것, 제가 느낀 감동이 독자들에게 모두 전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또한 독자들께서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시고 마을공동체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임우택

나의소개 글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을 홀로 즐기고, 음악을 들으며 흥겨워하는 시간을 종종 가집니다. 정의여고 국어교사로 있을 때 나의 별명은 까만소인데 피부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인상깊은 점 마을을 일구며 이름 없이 땀 흘리는 마을 농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기록이란 마을의 자원을 축적하는 일이며 소중한 자원을 찾는 일입니다.

독자에게 한마디 마을공동체 활동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일입니다. 독자님들께서도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세요.

나의소개 강북구 삼양동에 살고 있으며 강북구 문화, 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이영란입니다.

이영란

인상깊은 점 마을에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가지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 기쁨도 고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볼어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독자에게 한마디 고민은 나누고 즐거움은 배가 되는 마을공동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어요. 지금 두드려보세요!

박주리

나의소개 내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인상깊은 점 마을기록가 활동으로 마을공동체를 처음 알게 되었고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 모습은 신세계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삶을 배웠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독자에게 한마디 현실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CONTENTS

2018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사람

마을을 품다 

Part1. 마을공동체로 읽는 강북구

마을공동체가 뭔가요?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
강북구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

Part2. 강북구 마을공동체 심층 인터뷰

미아동

삼양 · 미아 · 송중
송천 · 삼각산동

01 두루두루배움터	14
02 양지마을공동체	16
03 푸른별환경도서관	19
04 마을꿈터	22
05 송천동 녹색가게	25
06 책읽는마을북카페	27
07 밝은작은도서관	30

번동

번1 · 2 · 3동

08 강북역사문화연구회	33
09 개굴개굴	35
10 꽃샘길	37
11 몸지클럽	39
12 맘찾사	42



수유동

수유1·2·3동

13 수유리콜라보	44
14 마을엔동네씨	46
15 실버엔젤	48
16 엄마가쏘아올린공연	50
17 풀빛살림	52
18 함께웃는 가게	54
19 함께사는 수유1동	56

우이동

20 강북음악크루	59
21 마을목수공작단	61
22 강북마을텃밭	63
23 삼각산재미난학교	65
24 소보사대안학교	68
25 수유채	71
26 싸롱드비	73
27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75
28 삼각산재미난도서관	77
29 강북FM	79



인수동

30 공동육아 도토리집	82
31 마을소리	84
32 마주이야기	86
33 밝은누리 생명평화공동체	88
34 수유현대빌라	90
35 어린이바른먹거리배움터	93
36 어진이마을주민모임	95
37 토닥토닥육아공동체	97
38 작은도서관함께놀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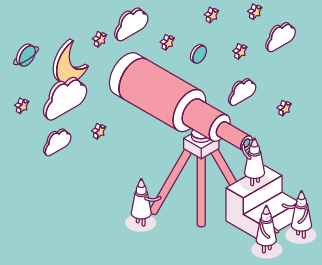
Part3. 강북구 마을공동체 참고자료

2018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돌아보기	104
2018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목록	106



마을공동체로
읽는
강북구

마을공동체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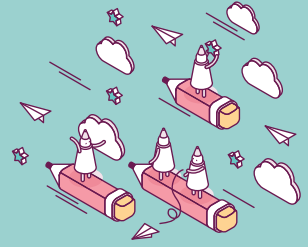
마을은 흔히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간을 일컫지만, 한발 더 들어가면 또래 친구들, 앞집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이웃이 함께 만나 소통하고 사귀는 장입니다. 그 마을에서 이웃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형성되는 관계망이 바로 마을공동체입니다.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

- ① 우리동네 마을공동체 활동 알아보기
- ② 이웃과 만나 마을 둘러보기
마음이 맞는 이웃과 모여 마을을 둘러보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을 고민해보기
- ③ 마을공동체 사업 직접 해보기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원하기
 - 소식받기: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검색 후 친구 추가하여 마을 소식 받아보기
 - 상담지원: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에 1:1 사업 상담 신청하여 상담 받기
 - 상담문의: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070-7525-4360~1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검색 후 1:1문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활동 경력과 활동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민모임 지원



이웃만들기사업

동단위 지역 기반으로 이웃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주민모임 형성 지원 및 실행



마을계획

마을계획단이 모여 마을 의제 발굴 및 실행



마을활력소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소통과 협치의 공간 조성



공동주택공동체

공동주택 단지 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기반 조성



마을예술창작소

마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을 촉진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단위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향상하는 활동



마을미디어

마을에서 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학습프로그램과 시민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part.

강북구
마을공동체
심층인터뷰



01

관계의 매개, 두루두루배움터

두루두루배움터 | 삼양동

두루두루배움터는 수유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계매개'로 아이들, 청소년, 청년, 어르신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7살 박지원이고 현재 두루두루배움터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실무, 청년과 도농상생 강원도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정관상 목적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지역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돕는 단체예요. 주민들의 힘을 키우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 기획, 실행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11년에 대표님께 제안을 받아서 협동조합으로 만만한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일출마을 공부방이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모임도 하고, 농구수업 등의 자원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된 시기였고, 저도 공부방을 다니다 보니, 청소년 특성상 한군데 엮매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오는 것보단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부방 성격을 빼고 다른 형식으로 만들자 해서 이름을 '두루두루배움터'로 바꿨어요. 단체 설립을 하고, 아이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형식이었죠.

저희 기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이 먼저였어요. 애들이 오면 하고 싶은 걸 물어봤어요. 누구는 기

타를 치고 싶다고 하고, 누구는 셰익스피어 고전 4대 비극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얘기 나온 거로 모임을 진행했죠. 만만한 카페는 2012년도에 문을 닫고, 두루두루배움터는 유지하면서 현재 수유초등학교 앞 공간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동안 이곳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두루두루배움터에 청년모임들이 있어요. 싸울 때도 있지만 화해하고, 관계 맺고, 청년들의 일상적 소통, 질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특별한 콘텐츠나 공간을 매개로 한다기보다는, 관계 매개예요. 제가 아는 청년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지역 안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작년엔 심, 서로 알기, 공부 세 가지 테마로 로테이션 진행했는데 올해는 취업 등 다들 바빠서 맛집 탐방 기조로 가려고 해요. 월 1회, 밥 먹고 수다 떨며 생활 나눔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노인조직을 만들어보려고 매월 1회 노인밥상을 하고 있어요. 올봄에 장기 대회를 한번 열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9월쯤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일상조직으로는 지역 사람들을 더 깊게 만나자는 차원에서 풋살모임을 하고 있어요.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에 소속되어서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와 노동밥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생태 가치와 스스로 자기가 한 것들을 책임지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아동들의 들살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역사기행으로 두 차례 다녀왔어요. 두루두루배움터에서는 수유초등학교 대상으로 틈새돌봄을 진행 중이고 그 외에 지역의 사안들에 참여하고 있지요.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등학생 사랑방이에요. 처음에 온 아이들이 먹은 걸 내팽개치고 가요. “네가 먹은 건 싱크대에 놔두고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애들한테 같은 말로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 공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느껴요. 아이들과 과자 파티를 하며 스스로 규칙을 만들거든요. 또 저는 제가 즐거울 때 보람을 느껴요. 제가 풋살을 재밌어하고 사람들 웃고 떠들고 만나는 걸 좋아해서 때로는 언성도 높일 때도 있지만 모이면 웃음이 많이 나잖아요.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를 했을 때 지나가던 애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누가 먼저 아는 척 할 때 보람차요.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고민이 가끔 되지만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아요. 마을활동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봐서 거기서 나온 생각이 더 유용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 하는 고민 중에 96%가 쓸데없는 고민이란 말도 있잖아요. 일단 인사하러 가요. 어떤 말과 태도를 해야지 고민하면서 가요. 막상 가서 인사를 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편하게 받아주세요.

20대까지 3년 남았네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2년 4개월 남았어요. 근데 그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재밌는 것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전 지금이 시간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0대는 사업을 할 것 같아요. 크든 작든 가게를 할 것 같은데, 두루가 준비 중인 것도 있어요. 출자금 모아 제대로 ‘협동’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출자금배당이 아닌 노동 중심 배당을 하는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자. 수익 낮을 때 노동한 사람들에 배당금을 더 줘야 한다고 동의한 사람들과 준비하고 있어요. 돈 많이 났다고 배당하면 일반 주식회사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02

‘함께 함’의 가치를 지향하는 양지마을공동체

양지마을공동체 | 삼양동

양지마을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소통하면서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우정과 인정이 흐르는 마을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0년대 초, 이곳에 새마을 주택이 형성되면서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어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정년퇴직하였지요. 지금은 양지마을 대표이며 부대표인 김경숙님, 여러 운영위원님과 함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였지요. 2017년 9월 양지마을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사랑채 개소식을 열었고 2018년 3월에는 사랑채 2층에 환경도서관을 개관했어요.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푸른별환경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를 돌보며 교육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삼양초등학교 옆에 있는 마을에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강북 최초의 계획 동네이자 새마을 주택이었던 이곳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뜻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불편한 길을 포장하고 어두운 밤길에 조명을 밝게 하고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며

모여 지낼 수 있는 공간인 양지마을 사랑채를 만들면서 양지마을공동체의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옛날의 새마을 주택을 잘 보존하고 나무도 가꾸어 예쁜 마을을 꾸미는 것이었어요.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되자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건축업자들이 집을 매입하여 빌라를 세우면서 마을의 형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새집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도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본래의 꿈은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차선책으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민과 함께 서로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는 마을을 만들자며 활동을 하였지요.

마을 잔치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웃들이 모여 주민잔치를 만들고 청국장, 콩나물을 함께 만들기도 하면서 마을 기금을 마련했어요. 올해는 매실청, 매실장아찌를 만들어 전량 판매를 하였고 사랑채 건물 1층에서는 북카페와 작업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소통과 공동작업을 하고 있지요, 2층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동네 어린이를 위한 돌봄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집 문제 때문에 모였는데 홍보 겸해서 마을 작은 공원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25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와 장기 자랑을 하면서 즐겼는데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을 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 청국장 만들기 사업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마련한 것도 자랑이자 보람 있는 일이었지요.

삼십 년 동안 이웃들이 옆집 사람도 모르고 지내다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만나 이야기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하면서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한 일입니다.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된 이후에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과 팔면 다시 집을 살 수 없으니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팔고 떠난 자리에 빌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왔지요. 젊은 세대는 대부분 맛벌이를 하

는 사람들이었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은 떠나버렸고 새로 온 사람들은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서로 잘 모르니까 접근하기도 어렵고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선생님께 양지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는 특별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향한 것은 함께 함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면서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예요. 이것이 곧 마을 공동체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웃을 모르고 살았어요.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사는커녕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의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그러한 구체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이며 그것이 즐거움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마을공동체는 운영이 되어야 하고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2층에 푸른별환경도서관이 지난 3월 만들어졌어요. 이 도서관에서 교육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싶어요. 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이 공간을 통해서 배우고 엄마들을 마을 교사로 세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들이 3D프린팅 교육을 배워서 아이들과 다른 젊은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젊은 엄마들은 젊은 아빠들도 불러내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도 김치나 음식 만드는 법 공예 등을 가르치면서 서로 어울리게 되면 세대 간의 통합도 이루어져 보다 생동하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양지마을 사랑채는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사는 모습이 보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마을활동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의미 있는 기억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물건이란 것은 없고요.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운영위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함께 마을을 위해 애쓴 그 마음입니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모으면 우리가 다음을 위해 저축을 하고, 그렇게 저금이 조금씩 쌓이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03

마을의 작은도서관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

푸른별환경도서관 | 삼양동

‘푸른별환경도서관’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배움의 장이자 책과 더불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창의놀이공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별환경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는 김향지 관장이에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선정 수행기관인 ‘환경인식변화 교육커뮤니티 공유인’ 실무책임자이기도 하고요.

50+당사자연구 마을교육공동체 시스템개발 책임연구원을 하면서 마을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14년 양지마을 도시 재생이 시작될 때의 인연으로 마을에 책 3,000권을 기증하고 양지마을 공동이용 시설 2층에 환경특화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2014년 강북구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강북구 희망찾기 커뮤니티매핑 지도제작사업’으로 선정돼서 강북구 35개의 어린이 공원을 매주 아이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어린이공원의 사용 주체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공원의 문제점들을 발견 하고 개선할 점들을 정리하여 구청에 제안하였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시민교육을 기반으로 주인의식과 자긍심이 높아지는 주체적인 아이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공동체의 일환인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경험의 기회가 없어서라



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필요성으로 5년째 생활환경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고 있어요. 삼양동주거환경관리지구 매핑 활동을 마치고 범죄 예방디자인을 제안한 사례들이 마을에 적용되면서부터 양지마을주민공동체운영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푸른별환경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2018년 3월 24일 개관부터 저희 도서관은 재료만 제공되는 ‘요일별 특화놀이’라는 자발적 참여형 상시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어요. 월별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간관계망 활동 ‘마을이 리빙랩이다 보건생활환경교육’, 틈새돌봄서비스와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배움터 방과후 프로그램 ‘리폼시티연구소 3D모델링 체인지메이커스’,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학교 ‘3D프린팅과 디자인브랜딩’ 프로젝트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여름방학특강 마을배움터 골목길오리엔터링, 구술사인터뷰, 쿠킹스튜디오 동아리 엄마와 함께, 3D프린팅 기초과정, 3D프린팅 나만의 창작작품 시제품 만들기, 3D프린팅 토이비누 만들기 체험교실, 엄마일일교사 특화체험교실, PBL문제해결형 PPT 발표수업, 한방삼푸교육을 진행했어요.

하반기 프로그램으로는 3D프린팅 모델링강사 양성과정_보드게임편,커피마리스타교육, 마이버블메이커, 영어동화책READING동아리, PBL컴퓨터국제인증자격증 도전편을 진행중이고요. 그 밖에 도서관 개관축제, 강북마을문화주간 마을공동체 어울마당 부스참여, 강북책문화축제 부스참여, 마을소통축제 ‘할로윈데이 파티’, 삼겹살DAY, 환경축제2018 THE GREENERY FESTIVAL 공동주관 및 주최, 다수의 탐방수업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 가장 보람 있던 일이 있었다면요?

다문화가정 친구가 가정통신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매일 가정통신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1학기 동안 진행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 챙기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죠.

또 한 친구는 극소심해서 친구들과 눈도 못 맞추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에게 책을 권해 주기도 하고 수다쟁이가 된 모습을 보면 기특한 생각도 들어요. 하루는 미술학원이 쉬는 날인데, 할아버지가 모르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가신거예요. 그런데 5살 아이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 평상시 할머니와 다니던 길을 생각하면서 도서관을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도

서관이 생각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게 이 공간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기도 했어요.

강북마을문화주간 프로그램 '마을여행' 탐방을 통해 방문했던 청각장애인 친구들의 3D프린팅수업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농인교사와 청인교사가 함께 진행한 콜라보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누구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런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기억에 남는 일은 "아빠, 나 양지마을사랑채에 가서 친구들과랑 같이 술래잡기 하고 같이 놀아 주면 좋겠어" 라고 딸아이가 얘기하자 그날 하루는 마을 아빠 대표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죠. 아이스크림을 사서 동네 아이들에게 다 나눠 주시고 모두의 아빠가 되어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벌이가 많은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걱정은 잠시 3월 28일 도서관 개관 이래 방문자 10,000여명이 넘게 찾아주셨고 회원 140명이 가입을 하셨어요.

어려운 점은 저를 포함해서 상근 선생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 6개월 동안 월~토(13~19시까지) 매일 무료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죠. 부단 우리 마을만의 고민은 아니겠지만 무늬만 공동체인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공동체 활동에는 책임감 있는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만 강요되어진다면 지속하기가 힘들겠죠. 희생이 아닌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임에서 하고 싶으신 일이 더 있으신가요?

푸른별환경도서관은 지속가능발전 도서관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지역 내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누구

나 3D프린팅 기술과 장비의 접근기회를 쉽게 제공받고 지식을 창출하는 공간이기를 희망합니다.

환경을 주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하는 힘을 키우는 메이커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창의융합교육과정은 보다 더 많은 기회 제공 속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000권의 책을 기부하시고, 도서관을 운영 중이신데, 특별히 책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밤에 책을 읽고 싶는데, 불빛이 보이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새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책이 많은 곳에 가면 늘 신나고 즐거운 기억뿐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하도 잠을 자지 않아서 밤새도록 책을 읽어 준 기억도 있네요. 저에게 책은 가이드러너이자 든든한 파트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예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 마다 대형서점에 놀러가요. 저에게는 도서관이 놀이터인거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푸른별환경도서관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





04

마을의 어른, 아이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놀이터

마을공터 | 송중동

마을의 아이들, 어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서로 모여 일상을 나누고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해요.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하고, 활동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공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운영진 중의 한 명이에요. 마을공터는 2013년 4월 5일 개관했어요. 공간 소개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작은 도서관으로 아이들과 엄마들이 책을 읽고 빌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을 배움터예요. 저희는 강북구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과 어른을 위한 교양 강좌를 열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가장 큰 역할은 마을 사랑방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며,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모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갑니다.

소모임도 이 공간에서 운영이 됩니다. 가장 활성화된 모임은 기타 모임이 있어요. 기타 모임은 일 년 정도 된 '기타사랑방'과 5~6년 정도 된 '기타날다'라는 모임이 있어요.

독서 모임, 다도모임, 청소년 사랑방 초롱이라는 모임은 아이들이 5~6학년 때부터 모여 시작해서 지금 고1이 되었어요. 초롱2라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모임도 있어요.

저희는 모임이 시작되면 1기, 2기 이렇게 알을 낳는 것처럼 계속 이어갑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2년 지역에서 부모교육 강좌가 있었어요. 그때 도봉구 어린이 도서관의 이순임 관장님이 본인의 마을활동의 계기와 과

정을 들려주시고 엄마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마을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모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당(좋은 의미로)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강의를 해주셨어요. 마침 지역 활동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 교육이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엄마가 모였고, 독서모임도 만들었고, 이런 공간까지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작은 도서관 형태지만 마을사랑방을 해보자는 고민으로 초반에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풍선 아트다, 리본 만들기다, 뜨개질이다, 다양한 활동을 다 시도해봤었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 와중에 엄마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추려지더라고요. 의견이 모여서 기타 모임도 만들고 독서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공간 안에서 재활용 장터를 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활용 장터는 차차 정리되고 지금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또 비슷한 또래의 엄마가 많으니까 품앗이 육아 이런 것들 했어요. 방학 때는 애들 심심해하니까 엄마들이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독서교육, 미술, 만들기 수업을 했었죠. 그렇게 했던 것이 엄마들도 본격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서 마을 배움터로 확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꽃샘길에서 매년 9월 정도에 오패산 마을 축제를 이웃 공동체들과 함께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한 5~6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 주 토요일에 그 축제에 참여했어요. 오전에는 2~3시간 정도는 전시나 어린이 장터 등 부스 운영을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연을 해요. 공연에는



청소년 댄스팀도 나오고 난타, 우쿨렐레, 기타 공연 등 지역의 발표회 형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기타 공연을 했어요. 날씨도 좋고 잘 진행이 되어서 사람들 호응도 좋았어요. 새로운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생소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들과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리고 엄마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을꿈터에서 처음 독서 모임 했던 엄마들이 지금은 마을활동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북카페 책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을꿈터 운영진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들 성장한 것이 저로서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작은 독서 모임으로 시작해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성장하고, 배우고, 나누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지역에 홀몸 어르신이 많아요. 저희가 12월에는 산타 옷을 입고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이웃 산타'라는 행사를 해요. 가정 방문하여 케이크 선물도 드리고 기타 치며 노래도 불러 드려요. 처음에는 선물이나 주지 왜 집으로 오냐고 의심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마음을 열고 저희를 기다려 주세요. 저희 애들 크는 것을 지켜보시고 애들이 매년 카드를 드리면 차곡차곡 모아 놓으세요. 애들에게 "저번에는 이렇게 써 줬는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러합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과 관계를 맺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역시 동네에서 이웃과 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마을활동하면서 큰 보람이죠.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사람 때문에 가장 보람 있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티격태격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축제든지 마을 잔치 같은 것




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실망스럽기도 하죠. 동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강좌를 기획해서 진행했는데, 많이 모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아쉽고 힘 빠지고 그럴 때가 있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겠죠. 지금 CMS 회비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70명 정도가 정기 후원해 주세요. 많은 분이 마을꿈터가 의미있는 공간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해주시는데, 저희는 굉장히 잘 되는 편이지만, 후원회원이 더 늘어나서 이 공간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꿈터를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제 개인적인 삶이었던 같아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살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늘 엄마들이랑 뭔가를 궁리하고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같이 잘살아 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집에서 닭볶음탕을 끓이면 “꿈터에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 하고 반은 싸서 온다거나, 음식이 됐건 마음이 됐건 항상 서로 나누고자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일상을, 삶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죠.

앞으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요?

지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즐거운 모임과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민주주의 시민학습이에요. “우리가 좀 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없을까?”,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불어 잘 살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송중동에서 진행했어요.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뀌고, 주민자치가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주민은 나인데,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의식으로 지역을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도했어요. 이 활동을 지속해서 내년에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5

돈보다 가치, 송천동 녹색가게

송천동 녹색가게 | 송천동

44년전부터 돈보다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봉사활동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일념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봉사를 통해 노년의 삶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강북구의 노인공동체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36년생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이며 1947년 월남하여 1.4후퇴 때 대구로 피난을 갔어요. 서울 필동에서 자라고 공부하였고 졸업 후에 대전 한밭여중에서 교사로 근무했어요. 결혼 후 1962년 강북구 송천동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강북구를 떠나지 않고 살았지요. 1974년부터 강북구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지요.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돈보다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활동가의 삶을 산다는 긍지를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녹색가게는 45년 전 1974년 태동하여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해왔지요. 송천동 녹색가게는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는 생산적 봉사 활동 단체예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마을공동체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오랜 과거로 올라가지요. 마을공동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자생적인 활동을 하는 봉사단이었어요. 1974년 영훈 학교 이사장과 연결하여 버려지는 헌 옷 재활용 사업을 하면서 강북구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마련한 자금으로 강북구 청소년들의 과학교육을 위한 활동을 했어요. 은퇴 후에는 은퇴자로서 능력과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잠재된 능력을 생산적으

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가 생기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지요. 생산적 봉사활동을 하고자 했고 돈보다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마을의 노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1974년부터 공동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헌 옷을 수거하여 팔아서 그 기금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교육을 하였고요. 15명의 서울 의대생들과 야간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주로 공장에 다니느라 배움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을 가르쳤어요. 검정고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고 했어요. 2003년도에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헌 옷 재활용 사업을 했지요. 수익금으로 이웃들과 함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했지요. 2013년부터 송천동 녹색가게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환경 지킴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 옷 모이기, 전통 된장 만들기, EM만들기, 흙공(황토를 공처럼 빚어 만들어 오염된 샅가에 뿌려 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사용함) 비누 만들기, 예절교육, 성년례, 마을 교사 교육 등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보람을 많이 느끼지요. 우리 회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던 주부들이었어요. 강의를 나가라고 하면 다 못한다고요. 교육이니까, 누구 앞에 서야 하니까 못 한다고요. “못하는 게 어디 있나 하면 되지.” 하고 말해요. 그런데 모이다 보면 교사 출신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교사 출신이 강의하고 또 한 사람은 보조로 하고 그렇게 한 2년 하나까 뭐 다 하지요. 그러다 보면 다 강사가 되는 것이지요. 강사가 되어 다녀오면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고 말해요. 송천동 녹색가게 정경순 회장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꿈이 교사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주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연동화 하러 다니고 데이케어도 다니고 봉사하러 다녀요. 봉사란 자기를 위한 활동



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 있다고 말해요.


힘드셨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거요? 힘이 든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명령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힘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이거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 “그래 좋다.” 하면서 같이 하나까. 하다가 실패하면, 끝나면 그만이지 그게 뭐 힘들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봉사에는 생산적인 봉사가 있고 소비적인 봉사가 있어요. 그냥 먹어치우고 말면 소비적인 봉사일 뿐이지요. 우리가 만들어 먹으면 1/3 가격이면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남은 비용을 모아서 후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지요. 우리는 돈보다 가치를 보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 변화가 있을까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는 과거에 하던 것보다는 봉사를 적게 했어요. 왜냐하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었다면 주변 젊은이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생단도 알게 되었고, 북부시민회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젊은 친구들과 만나면 또 재미있어요. 만나면 생산적인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요. 교육도 있어서 함께 교육하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짝거리고 다들 예뻐요. 모두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들 마음이 고와요. 그게 소득이지요.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 소득이 아닐까요?

앞으로 더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예절교육과 성년례를 실시하고 싶어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데이케어센터에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했어요. 과거에 국장을 했던, 교장님을 했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분들에게 재미있는 활동으로 근육을 움직이고 인지를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6

주민들의 배움과 소통의 공간, 책임은마을북카페

책임은마을북카페 | 송천동

‘책임은마을북카페’는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공간일 뿐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모임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강좌가 진행 되는 배움의 장이기도 합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임은마을 북카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고묘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강좌나 소작 활동, 소모임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1층인데요, 책임은마을 북카페는 2012년 12월에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죽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때 이 공간을 구청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열린사회 북부시민회가 위탁을 받아 ‘책임은마을 북카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전에 ‘두런두런’이라는 엄마들 소모임으로 활동을 했고요,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함께 자녀들을 교육하자는 뜻으로 모이게 됐어요. 애들이 어렸으니까요. 강북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두런두런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그 센터가 없어지면서 소모임 공간도 없어졌어요. 커피숍에 가거나 돌아가면서 엄마들 집에 모여서 모임을 꾸려 가다가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사무국장님이 저희 얘기를 듣고,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사무실 공간에서 소모임을 해보라고 추천해주셨어요. 거기서 소모임 활동을 하다가 이 북카페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꾸려 가자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지요.



그동안 이곳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활동들이 너무 많은데요, 바로 앞 정자에서 동네잔치도 했어요.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홍보도 하고 개관식 때 잔치를 한 거죠. 이 ‘책 읽는 마을’이라는 이름도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했어요. 동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밴드 동아리, 진로 탐색 동아리 같은 것도 했고,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동화책 수업, 만화 수업도 했어요. 송천동 녹색가게 어르신들이 오셔서 환경 강의도 해주었고, 강사님들의 재능기부로 생활 발효 강좌도 열었어요. 수채화로 유명한 신작가님의 작품을 한 달 동안 전시를 하기도 했지요. 4월이 되면 저희가 항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전시회를 열었지요. 그리고 ‘라이브 데이’ 라고 해서 매 달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자기 재능을 맘껏 뽑내는 활동도 했어요.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마을밥상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29인의 아름다운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마을 밥상’을 진행했어요.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서로 격려하며 네트워크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밴드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가 2시간 동안

‘마을 밥상’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북 카페 5년간의 활동들이 이 선생님들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이번 여름에는 손님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카페는 단골 손님들이 많은데 초등학생부터 노인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우리 카페 앞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매일 놀러 오세요. 그분이 친구 분들한테 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 분들이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안 오시다가 이번 여름에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한 달 내내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들이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여기 오시면서 ‘나도 한 번 꾸며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작은 변화이긴 하였지만 변화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여기 와서 에너지를 받고 가시는 게 저한테는 기분이 좋아요.

일반 카페에서는 커피 주문 끝이지만 여기서는 잠깐이라도 대화를 해요. 잠깐의 대화지만 대화를 통해 정을 나누고 보람도 느끼게 되지요.

반대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랑 인력이 문제죠. 작년까지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5년 차 이후로는 지원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월세는 안 나가요.
여기가 유희 공간이라서요. 대신에 도시관리공단이라 매
년 협약을 맺는데, 매년 맺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우리는 10년을 바라보고 활동을 진행하면 훨씬 안정적인
텐데 내년에는 협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도 자원 봉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
셔서 이번 연도부터는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카페도 세 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수월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좋은 거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없어서 못
열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매월 둘째, 셋째 토요일에 직
업 체험의 일환으로 청소년 친구들이 와서 봐주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나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어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활동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가면서
공간이 활성화 되었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을 주민인데, 영어 소모
임 회원 중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 카페에 오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연세가 60세인데 영어 소모임에 3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젊은 사



람들과 활동을 하고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좋
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
하세요.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해보고 싶은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런 식
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한편 소모임을 운영하려고 해요.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소
모임에서도 운영 대표가 한 분씩 나와 참여자에서 운영자
로 함께 활동하고 소모임이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
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 공간에서 활동하게 된 거니까
요. 그런 분들이 발굴되면 좋겠어요.

마을활동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받은 마을상인데요. 그 때
당시 강북구에서 '마을꿈터'랑 저희가 받았어요. 서울시 전
체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팀들을 선정해서
500만원 상금을 주었어요. 그 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도 하고 카페지기님들과 하루 여행도 갔다 왔어요.

소모임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소모임은 활동하는 시간에 커피 한 잔씩 드시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세요. '책 읽는 마을' 자체 소모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예약해 주시는 게
좋아요. ☺



07

배워서 마을에 돌려주는 밝은작은도서관

밝은작은도서관 | 삼각산동

밝은작은도서관은 초등 학부모 독서모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교사를 육성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책임어주는엄마, 식생활개선 동아리, 팝업북 교육 등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몸을 움직여 하는 활동보다는 앉아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에 읽었던 과학이야기와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사다준 책을 읽으며 자랐고, 고교시절 선생님께서 배운 실천적 책임기를 소중한 체험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밝은작은도서관에서는 어머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좌와 마을배움터 사업을 하였고요.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잔치도 도서관 공간에서 실시했어요. 과거에는 독서 위주의 활동을 주로 했으나 지금은 어머님들이 책을 골라서 아이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어머님들의 독서모임을 병행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주력하고 있어요. 밝은작은도서관은 인근에 있는 삼각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장소로 대관도 하고 공간이 필요한 이웃이나 단체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회원들은 삼각산초등학교의 엄마들이며 봉사단체 임원들이었어요.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동아리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학교 선생님께서 독서동아리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독서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지요.

삼각산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2014년에 만들어 처음에는 동아리실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 회의실을 예약하고 만나면서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섯 분이 시작하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열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락방 활동을 하고 계시던 이진숙 선생님께서 가정 형편 상 중국에 가야 할 상황이어서 여기에 와서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었지요. 엄마들이 초등학교 엄마들이고 해서 제안을 하였더니 공간도 넓고 좋으며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보기로 하고 2015년 11월부터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밝은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독서동아리인 만큼 격주에 한 권씩 읽어서 연 24권을 읽었어요. 권외로 읽는 책들도 있으니깐 연간 30권 정도는 읽어요. 책을 읽고 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담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며 독자와 대화를 통한 경험을 축적했어요. 또 '책읽어주는 엄마' 활동도 여기에서 1기까지 진행하였고 식생활연구 동아리 등 연구동아리들도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요. 회원들은 책을 매개로 삶의 내용을 확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 슈링클스 만들기는 재미있고 인기 있는 활동이었어요. 플라스틱 종이에 그림을 그린 후 구우면 딱딱해지는데 이것으로 핸드폰 고리나 책가방 고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쁜 장신구를 만들었지요.

작년에는 팝업북 만들기를 8차시 진행하였고 심화과정도 실시했어요. 활동에 참여한 저희 구성원들은 이 공간에서 열리는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미디어 인터넷이란 NIE강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미디어 인터넷 강의에 대한 어머님들의 관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한 어머니들 중에는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전문 강사가 되어 학교나 마을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재능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연관을 맺게 되고 재능을 발견하여 학교 수업을 나가고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공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일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배운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자부심을

갖게 돼요. 예전에는 회원이었던 분이 이제는 사업 제안자가 되고 전문 강사가 되어 활동하느라 바빠서 도서관에서 얼굴을 보기 어렵게 될 때,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뿌듯함을 갖게 됩니다.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움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 때문에 함께 참여한 회원 분들이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을 벌이는 사람이지요.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니까 조금 빨리 여기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16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 공모라든지 출판사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까지 한 번에 6~7개의 일을 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고 소통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 오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밝은작은도서관 활성화 모임을 준비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는 모임의 성장 과정에 따라 오는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며 힘들어 하는 분들의 마음을 보다듬고 챙겨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힘겨워 하신 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저는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안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가 너무 심해 어디 나가서 앞에 서지 못하고 긴장이 되고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특히 시험 당일이 되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예민한 병들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민성 예장증, 두통, 불면증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몸으로 하는 체육활동은 못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사람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여러 해 진행하여 오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업 공모와 출판사일 등 여러 가지를 바쁘게 해오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힘든 일도 당연한 순서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민감했던 사람이 둔감한 사람으로 변하였답니다.

앞으로 더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고 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모을까,’ ‘도서관에 책을 어떻게 모을까,’ 등으로 고민했는데 그런 고민은 노력

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는 유명 작가들도 모셨는데 아이들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작가 분에게 오시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서관보다는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쉽게 누구나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가려고 해요. 자격 조건이나 그런 것 없이 누구든지 장소가 필요할 때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여기에 와서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밝은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 한 번 해주세요.

이 공간은 늘 열려있고 그리고 뭔가 실험적인 것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떠한 이야기든지, 어떠한 것들이든지 저희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 시도하고 노력해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08

역사문화 알림이 강북역사문화연구회

강북역사문화연구회 | 번동

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의 역사문화를 홍보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유적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북역사문화연구회 회원들 7명과 기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북구에서 89년부터 살고 있어요. 고향이 강진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으로 강북구에서 진행한 다산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다산아카데미 총동문화 창립회장을 지냈어요. 지금은 강북역사문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북구 역사관광해설사, 시인 등 각각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역사 공부와 주민과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원은 7명이고 기자단이 함께 활동 중이에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강북구의 역사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다산 아카데미 수료 후 총동문회를 운영하면서 소중한 역사를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동문회를 운영했던 임원들과 역사 모임을 구성하고자 뜻을 모아 재작년(2016년)에 강북역사문화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역사에 관해 토론하고 답사도 진행해요. 작년에는 우이동을 중심으로, 올해는 번동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역사에 관한 토론과 답사를 했어요. 주변에 많은 유적이 있는데 사라진 것들이 많아서 그걸 우리

가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역사 유적을 조사한 자료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매년 말에 책자를 만들어요. 올해도 책을 100권 남짓 만들 계획이에요.

올해 6월에 <괴나리봇짐 메고 떠나는 우이역사 나들이>라고 해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30여 명이 모여 합죽선에 우이동의 역사 지도를 그리고, 흰 비단에 글과 그림을 넣어서 괴나리봇짐을 만들어 어깨에 메고, 홍양호 선생의 별장터, 홍만희 선생의 묘, 정의 공주의 원찰 도성암 터, 우이구곡 중 6곡 월영담, 손병희 선생의 봉황각 등의 우이동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행사도 진행했어요. 해설과 함께



우이동의 숨겨진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8월에는 <풍석 서유구>의 저자인 진병춘 선생을 모시고 풍석 서유구 선생이 변동의 변계산장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진행했어요. 9월에는 창녕위귀재사를 중심으로 변동 답사를 진행했어요.

풍석 서유구 선생이 계셨던 공간을 같이 공감하며 책자를 만드는 체험도 했어요. 풍석 서유구 선생은 실학자로서 변동에서 변계산장이라는 농장을 운영하며 3년 동안 임원경제지를 정리하셨어요. 그때 썼던 자연경실장이라는 판심이 박혀 있는 원고지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같이 책자를 만들어 보는 경험도 했죠. 20여 명이 모여서 <서유구 선생과 함께 실학 여행하며 나만의 백과사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외에 우이동의 윗판 바위, 인평대군의 별장이었으며 그 전에는 성민이라는 승려가 있던 조계사 터 등을 찾았는데 이런 곳에 표지석을 세우거나 구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기자단도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연구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연말에 만드는 책자에도 일부 파트를 담당하여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보람 있던 일은?

답사나 행사 시 뜻밖에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잘 모르시던 역사 주제에 대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감동하시며 계속 참여를 원하시며 다음 행사에도 연락을 원하실 때,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힘들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할 때 속으로 열심히 못 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이 들지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각오도 다지게 되죠. 이 활동의 취지가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같이 즐기자는 취지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 취지가 약화 되잖아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역사를 몰랐던 주민들이 역사에 관한 관심을 두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활동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해요. 이런 활동이 더 폭넓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앞으로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

내년에는 수유동 쪽을 중심으로 답사할 거예요. 수유동도 굉장히 좋은 유산들이 많아요. 아카데미하우스 옆에 구천계곡이라고 있어요. 바위에 한자로 구천은 폭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인조의 아들 인평대군이 ‘송계별업’이라는 별장을 짓고 살았는데, 그 터가 배드민턴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전에 그게 조계사 터였고, 대단한 기록이 있는 유적들이 있어요. 주변의 많은 유적을 찾아서 표지석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도시임을 뒷받침할 소중한 유적을 찾아서 홍보하려고 해요. 다른 마을공동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기자단을 추가 모집해서 마을 신문을 한번 만들 생각이예요. 마을 주민이 만든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그러니깐 기관지라든지 강북에 있는 정보지 수준의 지역 신문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게나마 강북에 있는 유산들을 소개하고 진정한 현대문화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고민하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 볼 생각이예요. 



09

엄마, 아빠, 아이가 모인 마을, 개굴개굴

개굴개굴 | 번동

아이들, 가족, 이웃에서 나아가 마을이 바로 우리 가족
이 되길 바라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개굴개굴은 2016년 이웃만들기를 시작으로 결성된 마을공동체이며 나름대로 차근차근 성장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첫 시작은 '아이들'이었으나 점차 '엄마', '아빠', '바로 선 가족', 나아가 '이웃가족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 하고 있어요. 관계와 관계를 이루고 마을이 가족이 되는 막연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첫 시작은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이웃 만들기에 이끌려, 공동육아 또는 품앗이 육아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모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경험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모임을 하는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이웃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모임 첫 해 2016년에는 아이들의 품앗이 육아가 주 이유였어요. 그러나 2017년은 엄마에게 보내는 응원으로 엄마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은 아빠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빠들이 모이면서 아빠 수업을 하게 되고, 아빠와 아이들의 정

서적 스킨십을 응원하며 최근에는 7가족의 워크숍도 도전 해봤어요. 그래서였는지 이제는 예전 한 골목에 모여 있는 집 순가락 수 알 듯이 이웃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서로 나누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최근 가장 재미있게 했던 활동은?

8월 하순에 떠난 가족 워크숍이요. 7가족의 아빠 엄마 아이들 전부가 움직이고 차량만 해도 각 집에 7대. 아이들까지 이런 가족 구성원 전체를 주제로 움직인 워크숍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1박으로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아빠들 술만 먹는 1박이 될까봐 사회복지사가 직업이신 아빠께 레크레이션 담당 역할을 주고, 연령이 제일 높은 아이들은 핸드폰만 보는 시간이 될까 돌보미 선생님 역할을 주기도 하고, 졸린 아이들 잠들 수 있게 미니 빔으로 영화관 상영 역할도 나누어 하고, 하루 요리사로 트레이더스 장보기부터 워크숍, 고기 굽기, 볶음밥까지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해 주신 아빠도 계시고. 모두 각자의 역할을 조금씩 나누어 만족스러운 워크숍을 마쳤어요. 숙소로 잡은 곳에서 미니 수영장을 임의로 철수한 일이며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름 방법을 그때 그때 찾아갔어요. 또 가고 싶다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자체 평가는 최고 높음이에요.



활동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워크숍 당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의 돌보미 선생님 역할을 위한 자체 기획회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의 의견 대립과 절충점을 찾아 가는 모습,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두 아이의 실행 결과 평가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예요. 그리고 아빠들이 서로 알아가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아빠 수업이 숙제 같았을 텐데, 아빠 수업 이후의 다음 프로그램을 농담처럼 이야기 하며 기획하는 모습이 조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2018년은 '아빠'가 주제였기 때문에 아빠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아빠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토요일 아빠를 모이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아빠들은 의외로 부끄럼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인간관계에 상처 받고 또 인간관계에 의하여 힘을 얻고,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마을공동체가 가족에게도 관심이 옮겨지면서 조금 더 세밀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건강한 어른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건강한 어른인 것, 주변에 건강한 어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조그마한 연탄재에 눈을 묻혀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 듯이.

이외의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

아직 특정한 것은 아쉽게도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랬듯이 개굴개굴은 건강한 이웃이 되기 위해 사업이 끝날 때쯤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하고 싶은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잡힐 것으로 생각해요. 올 초만 해도 아빠 수업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저희 팀이 지금 이렇게 아빠수업을 진행 하고 워크숍을 갈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에요. 



10

주민에게 휴식을 주는 꽃샘길

꽃샘길 | 번동

오패산에 있는 꽃샘길은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김영산 선생과 주민이 1994년부터 가꾸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휴식 산책로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상경해서 여기 번동에 온 것은 94년도 4월에 이사 왔어요. 직업은 사진작가이지만 평소에는 꽃샘길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꽃길을 가꾸는 것을 보면서 '오삼오'라고 이름을 지은 주민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2007년에 '우정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꽃도 함께 심고 꽃밭도 함께 일구고 축제도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11년째 같이 일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줍고 치우기 시작했어요. 산길에 집안 오물이나 가전제품 같은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었거든요. 치위도 계속 버리기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분꽃도 심고 금송화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다 보니 꽃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전체 길이가 한 500m, 한 만에 평 되는 꽃샘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여기 땅이 마사 땅이라 비가 오면 파이고 그래서 돌길을 만들었어요. 공사하는 분들에게 안 쓰는 돌이 있으시면 저 위에 늘

이티에 갖다 놓아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길이는 한 100m 넘고 폭은 한 1.5m, 넓은 곳은 2m 이상 되는 돌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식이 있는 분이 지나시다가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공사장에서 나무를 얻어다 의자를 만들었어요. 저 위에 하나, 이 아래쪽에 하나. 크지는 않아도 한 세 명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고 방부 칠을 했어요. 그게 수명이 한 5~6년 가더라고요. 지금은 구청에서 설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배수가 잘되게 배수로도 만들어 지금은 비가와도 훼손되지 않아요. 저에게 조경을 따로 배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진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공원을 촬영해서 보고 공사하시는 분들의 방법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했어요.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5시에 일어나 일하고 8시에 출근하고 저녁 9시에 집에 오면 다시 꽃섬길 가꾸러 갔다가 11시 정도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저 밑에 보면 퇴비가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받는 퇴비가 모자라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낙엽송 참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것을 모아 쌓아 놓았다가 다음 해 9월까지 한약 찌꺼기, 깻묵과 EM을 혼합하여 만들었어요. 퇴비를 안 하면 꽃이 클 수가 없어요.

2007년부터 '우정회' 회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축제를 꼭 진행하다가 지원을 받아서 축제도 진행하고 꽃섬길도 가꿉니다.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서 아이들은 손수건 물들이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어른들은 도마 만들기, 천연 쪽물들이기 등의 체험학습을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어요.

올해는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게 '꽃사모'라고 꽃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서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 무용하시는 선생님이 공연을 해 주시고 제가 색소폰을 배우는 동아리에서도 공연을 해주셨어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예전에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사람도 안 다닌 곳이 이제는 아이들이 체험 학습 오고 의자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험악하고 좋지 않은 환경을 바꾸려고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찾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감동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빠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뭘 먹고 사느냐 가정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대장암이 생겼는데 활동을 제대로 못 하니깐 겨우 나와서 담배꽂초나 휴지 버려진 게 있으면 살살 없들려서 하나씩 줌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퇴원해서 처음 했던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도 못 했는데 이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적극적으로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1

몸지club 알아보기

몸지club | 번동

열심히 일하는 엄마들과 주민들이 몸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면서 힐링하고 있는 따뜻하고 숲속 같은 몸지club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주미라고 하고요, 강북구 번동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몸지 club 회원이면서 대표입니다.

몸지club은 '몸살림, 지구살림'의 준말로 몸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자는 의도이고요, 몸은 우리 몸을 살펴보고 지구도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 세상인데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면서 모여진 거예요.

마을공동체 활동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도시 사람들의 모임에 관심이 있었는데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을꿈터'란 공간을 보게 되었는데 3년을 지나다니면서도 속으로만 대체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해만 했어요. 그때 '마을 배움'이라는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마을꿈터의 박민주, 김혜신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조금씩 용기를 내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 하면서 생각도 넓게 갖고 적극적으로 모임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공동체 지원을 했어요.



혹시 몸지활동 하기전에 공동체에 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활동을 알고 계셨는지요?

도시에 관한 생각은 관심도 있고 궁금하기는 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로 공동육아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과 공동육아를 해볼까 얘기해보면서 만난 학부모님들과 “번동에는 그런 모임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행복한 6699(개굴개굴)라고 벽화 그리기 주제로 모임을 시작했었어요.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사업별로 활동을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마을공동체 주제가 ‘몸살림 지구 살림’이다 보니 크게 몸과 지구에 대한 두가지 주제로 진행했어요.

첫 번째 몸살림 주제는 저희 구성원들이 대부분 직장인 엄마거든요. 바쁘게 직장 다니며 집안일에 엄마 역할, 아내 역할까지 너무 바쁜 나머지 본인들의 몸을 돌볼 틈이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몸 펴기 운동’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자기 몸을 살펴보고 아끼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지구 살림은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환경이 나

빠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정했어요. 아직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단계라 많은 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동네에서 물건을 바꾸어 쓸 수 있는 재활용 장터를 만들었어요. 봄, 가을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오현초등학교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저희가 ‘힐링 타임’을 집어넣어서 글씨도 써보고 늘 집에서 먹는 밥 말고 정심 좀 깨우고 힐링 될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보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3년의 시간을 활동하시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이나 보람 있었던 일은요?

공간이 없어서 몸 펴기 운동을 계속 못 하는 게 아쉽지만, 재활용 장터를 무척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될까?”, “몇 명이나 올까?” 걱정도 했는데 시간이 가고 고정적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셔서 즐거워했고요. 아이들도 많이 기다리곤 해요. 참여하시는 저희 엄마들이 사실은 주말만 쉬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음식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보람이 있고 즐거운 거 같아요. 재활용 장터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생각을 맞추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이 조절해서 하나로 화합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고요,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문제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번동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공간마련을 위해 많이 돌아다녀요. 세 번째는 활동들이 재미있지만, 미리 계획된 행사들을 준비하다 보면 약간의 의무감이 들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려웠던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만큼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 좋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전과 후의 변화가 있을까요?


저의 성격이 소극적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든든함이 있고 즐겁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혼자서는 고민을 한다 해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다는 상대가 생겼다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모임에서 더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저희는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정되어서 만나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책모임을 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크숍이 남아있어서 많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같이 편안하게 걷기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주저했어요. 인간관계도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마을배움’의 교육을 받고 시작하기로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과정도 없이 시작하여 우왕좌왕할 때, 주위에서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요즘은 주변에서 저희에게도 많이 물어봐요. 마을공동체가 뭐냐고, 그럼 저희도 저희가 아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 알려주고 많이들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많아지면 마을에서 더 좋은 일도

많아지고, 재미있는 일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더 많은 사람이 활동하면 즐겁고 좋을 거 같아요. 저도 공동체 활동 하면서 이웃을 좀 더 알게 되고 혼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게 좋았거든요. 





12

마음을 찾는 사람들

맘찾사 | 수유동

지역주민과 함께 좋은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이 공간에서 재미있게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가기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맘찾사에 지원활동가로 활동하는 전선미입니다. 방과 후 교사랑 마을의 배움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은 맘찾사(마음을 찾는 사람들의 준말)고 2년 차가 됐고 운영위원으로 계신 다섯 분과 마음을 맞춰서 만들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나누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지역주민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제안자 팀을 이끌게 되었고요. 이후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해오셨나요?

일단 저희 모임명이 마음을 찾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함께 한 분들이 초등학교 엄마들이었고 엄마와 아이가 건강해져야지가정이 행복하고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해지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심리상담가와 함께하는 마음 돌봄을 진행했고, 아동 마음 돌봄도 엄마와 함께 활동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인 마음 돌봄

은 5회 차로 심리상담사님과 검사지를 활용해서 진행했고 더 필요한 분들은 이후에 추가로 개인 상담도 진행했어요. 돌봄 수업은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이나 기약해야 하고요. 마음 돌봄으로 자기표현 외에 다른 활동들이 필요해서 쪼물쪼물 만들기 활동으로 자수, 클레이, 천연비누 만들기 활동들을 손으로 만들어 가면서 엄마와 함께 진행했어요.

활동하면서 재밌거나 보람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모임 이름대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야 하지만, 엄마와 아이들이 따로 수업하다가 2년차에 엄마랑 아이가 함께 외부로 나가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했어요. 첫 번째로 북서울 꿈의 숲에 가서 자연과 함께 뛰놀면서 내가 살아가는 강북구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맞춰가는 게임도 했는데 재밌었고, 두 번째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운 것이 좋았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했다는 것이 제일 재밌었어요. 보람이라면 저 자신이 이 공간에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는 게 보람 있었어요. 두번째는 마음 돌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도 내려갔고 나 자신이 변화되었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마음 돌봄에 참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엄마들이 변화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가장 컸어요.

활동하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나요?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손재주 능력이 차이가 나서 참여하시는 동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런 분들을 토닥거리며 수업을 이어가면서 끝까지 참여하시도록 격려해드려야 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후에는 수업들을 진행할 때 어려워하지 않도록 초급과정으로 모집해서 진행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나요?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더라고요. 만들기 강사로 제안 받고 활동하면서 자신감이 커졌지요. 그러다가 경단녀(경력단절 여성)로 있던 제가 그냥 아줌마고 강북구의 동네 주민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니 제 영역이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게 좋았던 거 같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됐어요.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넓은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즐거운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공간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요. 같은 강북구 주민이지만 다른 동의 만들기 팀들이 나들이 오셔서 우리 공간을 이용하면서 좋아하는 걸 보니 일정만 맞으면 재능 나눔으로 좋은 수업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집에 있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도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만 집중하면 재미가 없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하는 느낌,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면 모임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좋은 모임들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13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젊은 청년들 모임 '수유리콜라보'

수유리콜라보 | 수유동

동네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주민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수유리콜라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수입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가 5명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강북구에서 만들어보자”해서 결성했어요.

현재 하는 일은 음악을 바탕으로 영상,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들을 예술인들과 결합해서 시도하고 있고, 주로 마을에서는 공연한다거나 마을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이외에도 음향대여, 영상콘텐츠 제작, 맞춤형 취미 음악 교육 사업 등을 해나가고 있어요. 행사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10대부터 ‘폼’이라는 청소년문화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했어요. 혼자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기타 치며 음악을 하다가 음악을 하면서 놀만 한 곳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다 ‘추락’이라는 축제를 지역에서 만났고 그 축제를 청소년문화공동체 ‘폼’이라는 단체가 진행했어요.

폼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에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20살이 넘어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 ‘폼’을 졸업한 선배와 다른 청년들과 함께 지역에 ‘청춘 형성

209'라는 청년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에서 청년들과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재미있는 실험도 해보고 자립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서 나온 결과로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음악을 하는 예술인이자 청년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가진 자본 없이, 소속된 회사나 인맥 등의 지원이 없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마을이 저희의 그러한 기반이 되어주었어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수유리콜라보'에는 3팀이 활동하고 있어요. '타스와유자몽', 'HR 시간' 그리고 제가 리드싱어로 활동하는 '트워드'예요. 공간은 음악 활동을 위해 만들었지만 팀별로 흥대나 다른 여러 곳에서 음악 활동하고 있고 3팀이 모여 수유리콜라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수유리콜라보에서는 동아리 성격을 가진 음악교육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Almost artist'라는 과정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악기 하나를 정해서 개인지도를 받고 밴드를 결성해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공연까지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외에도 청소년들과 하는 거리공연동아리, 청년들과 하는 청년학교 거리공연 모임,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과도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하고, 올 연말부터 지역에 다른 예술인 청년들도 저희처럼 발 딛고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고민으로 시작해서 함께 이 공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almost artist 과정 매듭 파티로 초안산 야영장에서 야외파티를 했어요. 조명, 장비를 직접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캠핑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낮에는 원반 던지기도 하고 신나게 놀고 나니 에너지가 되기도 했고 사진과 영상이 남아 그런 활동이 즐거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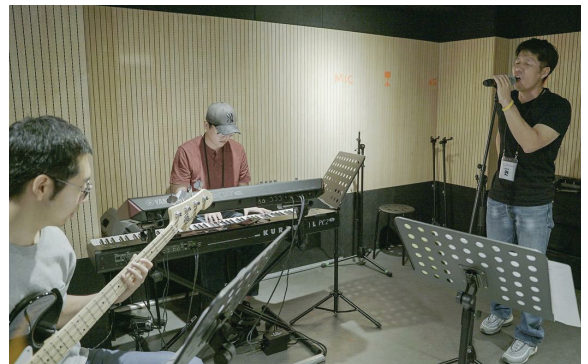
보람된 일은 저희와 접촉을 하면서 누군가의 성장 시점을 바라보는 것과 또 여러 면에서 저희도 성장했다고 문득 확인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다르게 공간에서 요구하는 일의 분야와 역량이 맞춰 나를 키워 가야 하는 상황들이 아주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2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시장에 내놔도 전혀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인과 청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 거점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음악을 위한 활동보다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그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재정비할 시간도 없이 다음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괴리죠. 하고 싶은 음악과 예술 활동을 택해서 즐겁게 살아오긴 했지만, 결국엔 해야 하는 것에 나를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들. 창작 활동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외에 '수유리콜라보'에서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내년 2019년에는 음악 외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센터이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기반이 될수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 열려 있는 시간 외에 쉬는 날에도 열어서 지역의 다양한 청년예술가들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많은 관심 두고 이용해주셨으면 해요. 





14

수유시장의 활력소, ‘수유 다락방’

마을엔동네씨 | 수유동

수유시장 다락방은 수유시장 안에 위치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다양한 동아리와 자유키페를 운영합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수유다락방은 수유시장 안에 위치한 생활 문화 공간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잠시 짬을 내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문화생활을 꾸려가며 활력을 얻는 공간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목공·바느질·풍물·마당극·다문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 특히 2층에 자유키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장에 오신 마을사람들 누구나 다락방카페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현재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회원비로 운영이 되는데, 공간 유지가 어려워 회비를 올려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마을 모두의 공간으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선 시점에 다락방을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월 1회 운영회, 연 1회 총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목공·바느질·풍물·마당극·중국어 동아리를 진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목공과 풍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수유시장 ‘제 3회 우리가락 넘실축제’도 했어요.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활동 중 가장 재밌었던 일은요?**

안정적인 품물 연습을 위해 공간을 새로 얻어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청소와 방음재 붙이기 등 공사에 회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공간을 마련한 일이 기억에 남아요. 새로운 공간 마련 이후에 더 열심히 연습하고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락방을 찾아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다락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회원들과 처음엔 서로 다른 점이 많아서 힘들었다가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서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마을공동체 활동 전과 후, 변화가 있을까요?

다락방 일을 함께해주기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처럼 다락방에 와서 즐거운 활동을 펼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





15

동화로 시작한 따뜻한 공동체, 실버엔젤

실버엔젤 | 수유동

평균 70대의 어르신들이 강북구 수유동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실버 천사들의 모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백경자이고요, 43년생 75세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실버엔젤은 우리나라 새싹인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임이 작지만 머지않아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싶고,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를 지도할 때, 그 친구가 처음엔 불안해서 사람도 쳐다보지 못하고 제 말에 한번도 대답을 안 했었어요. 꾸준히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하나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서 뒤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 기회를 줬더니 너무 멋있고 안정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마음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품고 지도를 했어요. 2년 후에는 아주 친해졌고 우리 남편과도 인사도 잘하고 친해졌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동화를 많은 사람에게 읽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도봉도서관에서 유아 동화 읽기가 있었는데 제안이 와서 2015년 북스타트 활동을 시작했어요. 2015년에 만난 사람들하고 “동화 들려주기를 해 볼까요?” 해서 3명이 모였다가 그 후에 10명 정도가 시작했어요.

실버엔젤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활동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모였었는데 감사하게도 2명이 오셨었어요. 그때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분이 “이름을 ‘실버천사’, ‘실버엔젤’ 이라 하세요.” 라고 도움을 줬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2016년~2017년, 어린이집과 장애아이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반기고 행복해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은 거예요.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는데 9명이 되었고, 계속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 주는 게 좋다는 확신을 했지요. 마을공동체와 협동을 해서 재미난도서관, 나뭇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성체유치원, 수유1동성당, 백운어린이집도 갔어요. 강북도서관에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2달에 한 번 하게 됐고 이제는 강북 보건소에서 안전에 관한 동화를 들려주고 있어요. 보통 책은 도서관에 가면 40분 정도 읽어줘요.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우리의 부족함이 생기면서 동화교육도 받고 자료도 구입하고 회의도 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회원들이 받은 교육으로는 기초교육, 역량 교육을 받았고 자체연수로 심리학박사 교육도 진행했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진 못했어요. 회원 중에 미술가가 계셔서 미술도 배우고 숲 해설도 해주시고 이번에는 2달간 경제교육을 받았습시다.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요?

마을공동체 활동할 때 회원들이 많이 모였으면 했는데 바쁘다던 사람들이 9명까지 모이거나, 활동하다가 말성이 생겼는데 그게 풀어지면서 다시 이어질 때,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게 보람이 있어요. 경제교육에서도 부자의 조건이 돈

이 아니래요. 사람한테 신뢰받는 친구 1명이라도 있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부자구나. 그래서 행복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나요?

함께 활동하던 회원들끼리 종종 오해가 생겼을 때랑 회원들이 활동 이후에 힘들어하며 지쳐서 집으로 가는 모습이 맘이 안 좋았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마을공동체는 서로 자원을 나누고 도우며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것이다.’

활동을 처음 시작하고 이 말을 접했을 때 너무나 와 닿았어요. 나를 성장 시킨 거지요. 내 집안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 했고 마음도 따뜻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 되어버린 거지요. 호호 지금은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느라 바빠요. 외조를 다 해줘요.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요?

성냥팔이 소녀로 강의할 수 있는 경제교육 자료를 내 이름으로 만들어 줬는데 초등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이 보면 딱 좋을 거예요. 아직 빔 사용을 못 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용돈을 통해 경제를 말해주고 싶어요. 새끼돼지 3형제라도 경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회원 3명이 ‘꽃샘 길에서 행복해요’ 라는 무용을 3~4일을 준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동화도 들려주고 공연, 무용, 연극 같은 거로 찬조출연을 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연주해주면서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요.

마을공동체가 생소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이 꿈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요. 이 건 분명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젊은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활동하면 마음도 넓어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모든 일이 잘 돼요. 회원 한 분도 실버엔젤에 들어온 이후에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다고 들었대요. 기쁘게 사니까 건강해지고 저도 많이 행복해졌어요. 





16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존중, 배려

엄마가쏘아올린공연 | 수유동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공연으로 보여줍니다. 매년 새로운 공연을 보여주며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해서 3년 차가 되었어요. 책을 기반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고 같이 성장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공연을 시작했어요. 강북구 안에서 항상 마주치는 이웃이자 같은 학교 안의 학부모인 동네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 보람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는 자체적인 모임으로 출발했던 경우예요. 방송대 청소년교육과에서 공부하시는 분, 성교육하시는 강사분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자신을 잘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연극이라는 매체를 도입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게 됐는데 정말 합이 잘 맞는 엄쏘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북 페스티벌을 16년도부터 18년까지 매해 참여하고 있어요. 16년에 슈퍼거북이라는 연극으로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신경 쓰기 보다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공연했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초청 공연하기도 했

고요. 17년의 감기 걸린 물고기 공연은 인형극으로 성 평등이라는 주제를 녹여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존중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이 조인해서 공연하기도 했어요. 마을 공원 살리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는데, 그때는 체험극 형태로 아이들 한 백 명 정도가 왔어요. 책도 읽어 주고 슈퍼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게 했었죠. 18년도에는 곰씨의자를 가지고 산울림 소극장에서 공연했었고, 11월에는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구요.

엄소공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요?

엄마들이 엄소공에 모여서 수다 떨고 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요. 의미 없는 대화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떠는 수다? 그러므로 건설적인 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최근에 문화의 산실이라고 하는 산울림 소극장에서 공연한 경험이 재미있었어요. 공연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멋진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숙성된 것들을 주변에서 인정해주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공동체가 아니면 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일일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이지만, 엄마이지만 역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 낼 수 있구나 해서 즐거웠던 경험, 추억으로 생각돼요.

힘들었던 점은요?

회원들이 여덟 명이 있다 보니 기간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조합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사용하는 공간 부분도 어려워요. 공간 대어나 섭외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못짐 지고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먼 곳에 갈 수 없고 인근에서 장소를 갖기는 어려워요. 아직 아이가 어린 엄마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공연 연습에 같이 데려오면 아이 엄마가 집중하기 힘들어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해요.

또 전문성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요. 극 대본이라든가 음향, 무대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연결되었다면 좀 더 다듬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것이 지원된다면 좀 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죠.

처음에는 아무 욕심 없이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에서 한 발짝 더 올라가기 힘든 벽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한 단계 더 올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한정된 시간을 보내고 가정과 이 활

동을 병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잘해 나가야 행복하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이 일을 하면서 보는 눈도 넓어지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 존중감이 더 커져요. 내가 행복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엄마가 이런 일도 하네.” 이러면서 자녀들도 뿌듯해하고, 남편도 인정하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사람을 설레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좋으면 주변에는 물론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내 가정만 봤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이웃도 보고 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보게 되는 것도 큰 변화인 거 같아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만 잘살고 우리 아이들만 잘살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커가니까 우리 애들만 잘살아서는 우리 애들이 잘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조그만 씨앗이지만 뿌려 놓으면 언젠가 하나 정도는 퍼서 우리 아이, 내 아이를 잘살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또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민들을 바라보게 되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변화의 모습을 기대해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요?

구체적인 방안을 사실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이렇게 온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기회가 와서 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갈 길도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계속 공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획 중의 하나죠. 📌



엄마가 쓰아올린 공연(180929_산울림)



17

자연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풀빛살림

풀빛살림 | 수유동

삼양로 79길 19-3에 위치한 풀빛살림은 2016년에 설립된 녹색마을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을 공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녹색마을사람들' 전 이사장입니다. '녹색마을사람들'은 22년 된 풀뿌리 시민단체로 20여 년 전에 주민 5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2004년 서울로 이사 와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강북구에서 풀빛살림터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도와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천안에서 마을활동 경험도 있고 하니 해보겠다고 하면서 2004년 4월에 녹색가게에 합류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알리는 강사로서 주민들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강의도 했고 번동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길잡이 역할도 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옥탑방을 마련해서 숙제방을 운영했고, 그때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장바구니 사용운동도 하고 버려진 폐품을 손질해서 장터에 팔면

서 숙제방 기금도 마련하고, 일정한 장소가 필요해서 녹색 가게도 만들어 운영하고 수유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인계하면서 녹색가게가 상도 받았습니니다. 새롭게 수유2동 주민센터에 공부방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고 싶어서 많은 책을 후원받아 2002년 작은도서관을 오픈했어요. 우리가 주도해서 ‘풀빛살림터’라는 환경되살림터를 마련하면서 헌옷 리폼도하고 폐가로수로 생태미술품인 목걸이, 핸드폰고리 등등 여러가지를 만들었지요. 또 재봉틀을 배운 분들의 욕구가 나타나면서 ‘목화송이’ 이름으로 면생리대를 만들어 한살림에 납품하면서 자활에서 인력지원도 해주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했고 다문화친구들에게 재봉틀도 가르쳐서 취직도 시켜주면서 8년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풀빛살림터 공간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좋은 기회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마련했어요. 저희 공간 이름을 ‘환경되살림터’에서 자연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자는 의미로 ‘풀빛살림’으로 결정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은 소모임과 마을 배움터가 진행이 되었지요. 도서관에서 ‘사랑의 책 배달부’를 운영했고, 급식지원 활동사업으로 ‘미숫가루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제가 요리를 생활처럼 하는 사람이라 요리활동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동네 엄마들과 다문화친구들도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먹고 겨울에는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 어려운 할머니들께도 조금씩 나눠 먹는 활동들이 제일 재미있어요. 보람은 일단은 제 삶이 건강해지지요. 활동공간이 제 놀이터예요. 중년이 되면서 소비지향적인 삶이 아닌 건강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힘든 이웃을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힘을 받는 거지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법인이다 보니까 내부에 이사들을 설득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나 활동계획들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줘야하는데 활동상황을 잘 모르다보니 설득하기가 힘들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저도 가족들하고 사는 삶이 전부였는데 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어울려서 사는 게 참 재미있구나...” 그걸 알게 됐지

요. 마을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어울려서 살다보니 제가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수다쟁이 왕언니로 불려 지면서 제가 먼저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서로 욕구가 비슷한 분들과 연결해주고 활동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지요. 나만 즐거워하는 데서 벗어나서 마을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거지요.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

틈새돌봄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이 있는데 학생 수가 많고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못가는 거예요. 저는 육아를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워킹맘들 아이들의 돌봄을 해야겠다고 해서 재작년에 제안을 해서 2달을 진행 해 본 이후에 조사해보니 엄마들의 욕구가 대단 했지요. 내년에는 틈새돌봄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마을공동체를 모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가 보통 문화센터 같은 데 가는데 그곳은 강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받는 거지, 소통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현재 사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류가 어렵지요. 모두가 나에게 먼저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 같아요. “저 이사 왔는데 차 한잔해요” 하면서 두들겨야 해요, 먼저. ☺





18

모두 '함께 웃는 가게'

함께웃는 가게 | 수유동

발달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높이는데 힘쓰고 마을주인으로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힘쓰는 되살림 가게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께 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회원으로 협동조합 '함께웃는가게'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강북장애인부모회 일원으로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함께 웃는 가게'는 발달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높이는데 힘쓰는 재사용가게예요. 의류가 가장 많고 책,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해요. 똑같은 물건은 없어요. 어르신, 젊은 아기 엄마, 초·중학생들, 엄마와 같이 오는 어린이들, 초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중학생이 돼서 오기도 하고 멀리서도 오세요. 자원순환은 덜 사용하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아주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자원추출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버리지 말고 다시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사용, 기증물품을 가지고 오는 마을 분들은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셔서 한번 웃으시고, 매장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놀랄 만큼 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한번 웃으시고, 저희 가게는 그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며 한 번 더 웃는, 그래서 '함께 웃는 가게'이지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5명이 모이면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마을에 필요한 공동 목적을 가진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 같이 활동하게 됐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다른 장애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 고민을 많이 나누었어요. 장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공적인 돌봄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공적 돌봄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님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2008년부터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해보자고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체화하게 되면서 그 방법들을 찾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마을기업으로 '재사용가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009년 당시 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청년이 됐네요. 직업 재활이나 사회참여 방법으로 재사용 가게 체험하기 활동을 했어요. 지역의 민들레가게, 아름다운 가게에서 간단한 작업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그 활동을 계기로 "그럼 우리도 재사용 가게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되살림은 일단 재고 부담이 적고, 우리 생활 안에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고민 끝에 2011년 마을기업 '함께 웃는 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가게를 차리고 나니 영업매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사실 마을공동체 활동을 밀접하게 참여하지는 못했었어요. 한해 두 해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과 같이 마을하고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 우리가 청년들과 같이할 수 있는 활동을 마을 안에서 펼쳐 보려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게 됐어요.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2016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마을의 공간 10~12곳을 정해 발달장애 청년들이 함께 체험활동으로 공간을 소개받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2017년에는 직업이나 마을 기업의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도예 활동을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만든 작품을 판매해 보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두 번의 활동을 비교해 보니 장애 청년들과 함께 동네방네 다녔던 그 경험이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 청년들이 마을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마을을 만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들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 청년들은 익숙한 곳에만 머물고 싶어 하고 편하기만을 원해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관계를 더 확장하려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져요. 사실 장애 청년들은 혼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요. 마을공동체 사업 비로 장애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으니 의미도 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었어요.

힘드셨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애 청년들은 5명이 넘으면 비장애인 인솔자가 혼자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6명이 되면 인솔자가 2명이 돌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손이 더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일손 지원되면 된다면 지원 인력 부족함이 안전하고 더 의미 있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에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 변화가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혼자인 것 같은 생각으로 많이 외로웠는데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연대감을 하게 갖게 된 것이 활동 전과 후의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을 안에서 장애청년들을 알아봐 주는 눈이 더 늘어나는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 ○○이는 우리 마을 청년이야", "나는 ○○이 알이"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은 사실 상호 관계라 장애 청년들도 이웃을 하나, 둘 더 늘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계망의 확장, 공동체의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이후에 앞으로 더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갈 곳이 적은 것이 현실이에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청년들이 나이 들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발달 장애 청년들은 낮은 곳에 가자고 하면 거부감을 가져요. 물론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청년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잘 얘기해 끌어내서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노래 활동, 음악 활동을 좋아해요.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 운동도 하고 활동하는 일인데 활동하려면 돌봄 인력이 같이 움직여야 하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애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새로운 만남의 자리도 만들고 마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19

함께사는 수유1동 주민 사랑방, '함수사랑방'

함께사는 수유1동 | 수유동

함께사는 수유1동 주민모임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모임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유1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함께사는 수유1동'의 주민대표입니다.

처음도 그랬고 도시재생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동네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도시재생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작업들에 계속 앞장서는 그룹인거죠. 지금도 수유1동의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고자 자꾸 홍보하고 알리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여기 동네에 '책이랑놀자' 작은 도서관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째 됐나, 저는 거기서 회원으로 있었죠.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장소가 딱 좋았거든요. 거기 김주옥 선생님에게 활동가들이 찾아와서 주변분들 소개시켜 달라 도움을 청했겠지요. 그때는 장소도 없었어요. 희망지가 되고 나서 사랑방이 생겼거든요. 공공의 장소가 필요해서 녹색마을 사랑방에서 진행되었죠.

내가 나서서 우리 동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 그것들을 나중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회를 다녀온 뒤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죠. 아이가 강북구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 다녔거든요. 거기 어린이집 엄마들, 그리고 유현초, 혁신초등학교라서 마음 통하는 엄마들이 많았었거든요. 또 전 적극적으로 학교 동아리활동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동아리 같이하는 엄마들한테 알렸고 그들이 마을로 내려와 준거죠. 그들이 운영위원이 되어줬고, 지금까지 같이 활동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여기 '책이랑놀자' 도서관에서 주민운영위가 된 분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배우기도 하고, "제안서는 어떻게 쓸까?", "우리 주민모임 이름은 어떻게 할까?", "어떤 내용으로 마을을 꿈꾼다고 할까?" 그런 내용으로 3개월 꿈꿨어요. 거기서 주민 대표, 총무가 있어야 해서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가장 큰 점수가 주민 의지, 주민들이 얼마나 자립적으로 구체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지가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달랐던 건 저희는 젊었죠.

그동안 이곳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지금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것들은 활성화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초동주체로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랑 3년 내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지고 좋은데 저희들이 계속 소진되는 것들은 분명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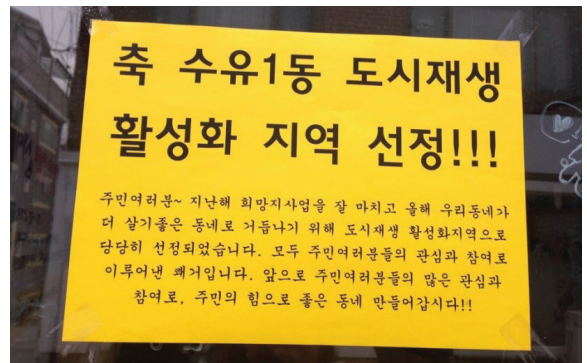
1~2년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가 지금도 모토이고요, 서로 지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이해한 도시재생활성화의 가장 큰 것은 예전에 도시개발과 같은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도시개발도 같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당연히 있어야 해요. 도로가 닦인다던가,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모임, 사랑방의 지속적인 이용. 거기서 주민들에게 자꾸 알려져서 조직된 주민협의체로 가고 있는 주민모임들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들이 와서 주민자치와 같은 얘기를 처음 듣고, 도시재생개념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도 듣고 사회적 기업, 동네에 나중에 생길 마을 기업, 이런 얘기를 생소한 얘기를 처음 들어본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것, 꿈꿔보는 것들이 여기서 얻어가는 가장 큰 의미 있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시작되고, 활동 중에 있고요. 더 확대되리라 생각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3년 전하고 되게 큰 변화죠. 동네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 동안 동네라기 보단 다들 살고 있는 삶터였죠. 놀이터 다녀오고 아는 친구들 만나고...

이건 사업 때문에 늘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엄마가 나서서 주민들이랑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뭘 가르치지 않아도, 동네에서 회의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엄마들 모여 있으면 자기네도 동네 형 언니들이랑 오랫동안 노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교육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학원 보내는 것 보다 백배 천배. 이런 것이 삶의 의욕이죠. 저도 시골 전라도 고창에서 자라서 서울로 이사온 사람이라, 어렸을 때 천동벌거숭이 놀던 것들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에 대한 경계보단 반가움이 많은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동네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야하는 일이잖아요. 위험한 사람이 아닌 반가운 사람, 좋은 사람. 어른은 어른이어서, 아이는 아이라서. 이런 경계심이 없어져야 제가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점이지요.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반대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여긴 사업지역은 아니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도시재생 했던 동네들 중 사업지역은 갑자기 확 집값이 올라버리는 경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해 이런 걱정도 했거든요.

제일 가슴 아팠던 때가 작년 12월 겨울, 같이 활동하던 분이 의정부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때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못 지키면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머물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주택 분과하면서 알아보면서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도 꿈꿔보게 돼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활동의 원동력이 있다면요?

저도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3년째인데, 처음부터 내가 앞장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동네에서 애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사용할 장소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공원에 화장실도 없는 것들을 느끼던 차에 도시재생을 통해 최소한 '이런 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겠다.', '공원이라도 하나 조성할 수 있겠다.' 이런 각각의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수유1동 전체로 놓고 좀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이 자기 집 앞 도로나 집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같이하고 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더 커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힘들긴 하지만 그것에 의미를 더 두기 때문에 지금 까지 오는 것 같아요. 



20

강북 음악인들 모임 '강북음악크루'

강북음악크루 | 우이동

2016년 설립되어 강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강북음악크루 대표 최찬욱이고 강북음악크루는 2016년 강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 몇 분이 모여 강북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3년 차 음악 단체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마을공동체는 잘 몰랐어요. 원래 저는 도봉구에 살았는데 작업실이 강남구에 있어 평소에 다니기에 멀다고 생각하던 중 5~6년 전에 강북으로 작업실을 옮겨왔어요. 아는 선배님이 이쪽 활동가인데, 이 동네가 굉장히 재밌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여기 말고 4.19 약간 위쪽에 작업실을 만들었었어요. 활동하면서 재미난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사람들과 친분을 쌓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지인을 따라 '씨롱드비'에 놀러 가게 됐어요. 인문학이 있고 술도 팔고, 책도 팔고, 전시도 하고, 영화모임도 갖는 인문학 카페예요. 책 팔고 술도 팔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했어요. 2015년 10월에 이 지역에 있는 3팀이 북서울 꿈의 숲 퍼포먼스 홀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재미난 학교, 재미난 마을, 강북에 있는 많은 분이 와주셔서 성황리에 공연을 끝냈어요. 그 공연을 보고 수유리블루스 밴드에서 리더로 있는 권광범님이 모



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어요. 재미난 밴드도 알게 되고, 그 밴드에서 노래하시는 분이 싸롱드비에서도 일하시고, 또 그 분이 재미난 학교 학부모시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니까 공동체랑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북음악크루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강북음악크루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시나요?

밴드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3~4팀이 싸롱드비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월 공연하고 프로그램 짜는 팀이 30팀이 넘더라고요. 포크데이에는 통기타 위주의 서정적인 노래도 하고, 7080 느낌의 공연이 격월마다 계속 열려요.

2017년부터는 국악 데이라고 해서 국악 하시는 김미현 선생님이 비정기적으로 석 달에 한번정도 공연을 해요. 가장 큰 거는 '강북음악페스티벌'이에요. 한해 연말에 2~3일 동안 크게 공연을 열어요. 2016년에는 북서울꿈의숲에서 공연했고 2017년에는 한신대 대공연장에서 공연했어요. 3일 동안 삼각산 예술문화회관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할 예정이에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다들 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같이 팀을 짜서 공연하고 활동하고 계속 음악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회원들도 같이 보람을 느껴요.

팀을 짜서 공연도 하고 같이 계속 음악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공연하려면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같이하니 음악적으로 성숙해지고 재미도 느끼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요. 나름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영광스럽게 인터뷰도 들어오고 다른 곳에서도 사례 소개도 들어오고 음악 하는 친구들도 알게 되는 것이 재미있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는 5~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하지 않으려하다가 우연히 제가 대표가 됐어요. 지금은 대표를 1년마다 바꾸고 있는데 임원을 뽑는 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랐어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관료 내는 것을 대신 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돈이 들어요.

대형 포스터는 아니더라도 포스터를 만들고 붙여야 하고 공연하는 친구들 식사도 같이하고 은근히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회비를 걷어 보자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한 달에 오천 원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했는데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은 40~5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회원은 1년 회비 6만 원을 완납하기도 하고 모두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회원 수도 많아지고 공연과 활동도 많아지고 외부에서 공연 의뢰가 많이 들어와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많아지고 다양한 생각도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주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많아졌고 이 지역에서 몰랐던 예술을 하는 분들 많이 알게 되고 많은 것들도 보게 되고 그분들 만나서 얘기들 듣고 공연도 보는 활동들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있죠.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우리가 밴드 음악이나 어떤 음악을 한다면 먼저 흥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약간 꿈같은 얘기지만 저는 4.19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그 길을 음악의 거리로 만들고 싶어요. 음악 카페도 많으니까 거기서 공연도 하고, 거리가 예쁘니까 계속 공연하면 "음악의 탑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끼리 하죠. 계획은 아니고 꿈은 갖고 있어요. ☺



21

나무로 만드는 삶의 터전

마을목수공작단 | 우이동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마을 목공 작업장입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목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청년이 함께 상생을 고민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는 '느티'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고 협동조합으로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2011년 5월에 10명 남짓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작은 생활기술로 삶의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모여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자립공간을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적 변화를 한 상태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요?

삼각산 재미난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활동들을 작게 지역에서 하고 있었고 저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누군가 목공소를 차리는 게 꿈이라 했고 그러자 "그거 좋은데.. 해 볼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마을목수공작단의 공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진 작은 기술을 주민과 나누고자 소소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공간이 운영됐죠. 처음에는 관심 있는 주민들의 모임이었다가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 마을의 청소년, 주



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배움터로 한 단계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이 공간이 운영되던 과정에서 이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우리도 뭐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고 찾아오게 된 거죠. 내심 이 공간을 좀 더 많은 사람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청년 문제가 많이 말이 되곤 하니 “우리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 공간 자체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들이 자립공간으로 만들어 낼만한 물적 토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하던 시점에 청년들이 먼저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의 자립 공간이 되기 위해서 올해 협동조합으로 조직적 변화를 한 상태고요. 청년들이랑 함께 한 게 3년인데 마을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실험단계로 시도해보는 상태예요.

활동 중 가장 보람있거나 즐거웠던 경험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이게 그냥 생활인 거예요. 그때그때 아이들을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엄마에게 “요즘 뭐로 행복하세요? 보람있는 일은요?” 라고 물어보면 한 두가지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듯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지난 활동을 쫓 해오면서 조직이 어쨌든 이 공간 자체가 이 지역 내에서 삶을 유지해 가겠다고 하는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활동하면서 힘든 점도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진 선한 의지와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이라는 부분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속에서 경쟁해

야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순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떤 충돌?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역에서 청년들 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고민과 마을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 사이의 중심을 잡아가지가 쉽지 않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가정 이 제 사회의 80%였다고 봐요. 그런데 마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의 고민의 지점들이 확대되고 내 주변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보조를 맞추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제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공간을 책임지게 된 게 한 5년 됐거든요. 초반에는 일주일에 3일을 밤 12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의 가족들이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면서 생긴 삶의 활력에 대한 응원과 지지라 생각합니다. 나의 고민이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무엇을, 어떻게?’로 옮겨간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겠죠.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에서 혼자 뭔가를 해결해나가기 어려우니 지역 내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요? 우리의 생활문화를 스스로 바꿔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살아내는 한 방법이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바꿔 가는 게 중요한 생각을 했던 거고. 공공의 영역에서 무언가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공공에서도 그런 활동의 지원 영역, 그 다음에 정책의 영역도 변화하지 않겠냐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제작활동을 계획하는 청년예술가들의 워크숍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공유공간으로의 변화를 그려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하고 교육활동을 보다 집약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화시킬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



22

마을 텃밭에서 키우는 꿈

강북마을텃밭 | 우이동

북한산 자락의 작은 공동 텃밭에서 함께 농작물을 키우며 내일의 꿈도 키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남선진입니다. 남자아이 둘의 엄마예요. 강북구에 산 지 12년 정도 됐어요. 텃밭 활동 시작은 4년 전쯤에 아이들과 아이들 친구들, 친구들의 엄마들하고 같이 숲에 놀러 다니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얘기하다가 텃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던 것이 3년, 4년 이어져 오다가 올해 여기 '강북마을텃밭'에서 텃밭을 좀 더 신경 써서 가꾸어 오신 분들과 함께 텃밭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강북마을 텃밭지기'를 올해 처음 하게 됐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올해 텃밭지기 활동을 하면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더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텃밭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밭에서 나는 작물로 하는 요리 활동도 재미있고요. 최근에 참여했던 쪽 물들여서 스카프나 손수건 만들기, 이런 것들도 너무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활동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지요.

텃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얼마 전에 GMO 강좌를 열었어요. 저희가 식생활은 관심이 많



이 가는 부분이어서 강좌를 열어 마을사람 누구라도 오셔서 들고 도움이 되었으면 했어요. 쪽 물들이거나 토마토 요리 실습을 하면서 햄버거도 만들고 퀴즈도 풀고 했어요. 텃밭지기들이 모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회의를 하고 매달 한 번 셋째 주 토요일마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언제가 가장 즐거우신가요?

저는 여기 오는 자체만으로도 좋고 평상에 앉아 있으면 행복해요. 가만히 있는 자체가 좋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손으로 흙을 만져보는 경험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힘이 되지요. 같이 활동하는 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텃밭지기 중에는 농사를 해보

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본인의 밭만 가꾸기도 쉽지 않은데 본인 밭뿐만 아니라 다 둘러보시고 다른 밭의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랐고 어디는 따야 하겠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공동체 텃밭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서로 돌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활동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요?

올해는 더워서 여름에 밭을 좀 못 돌봤어요. 저를 돌봐야 할 거 같아서요. 그래서 못 와서 아쉽고 그게 좀 힘들었던 거 같고 항상 제 밭 돌보기도 급해서 다른 밭을 조금 더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강북마을텃밭을 시작하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해 주셨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 씨앗을 틔우는 것부터 직접 전처리 음식물로 퇴비도 만들고 작물 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아이들 텃밭 교육을 해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런 텃밭 활동을 누군가가 먼저 해주어서 제가 거기에 밭을 담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대해 생각도 할 수 있고 계속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곳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모임을 어떻게 꾸려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계속 ‘강북마을텃밭’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이 형태로 유지되는 그것 자체가 발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차곡 차곡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 가는 그런 텃밭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협동조합을 만들고 도시 농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서둘러서 뭘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이 밭이 이렇게 다양한 밭이 아니었는데 한 해 한 해 정말 많이 성장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차면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욕구나 더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23

따뜻한 돌봄과 자유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속 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 우이동

모두 함께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속에서 다른 사람이 정해준 배움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 도시 속에서도 마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세은입니다. 2008년부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처음 왔을 때는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통합지원 교사로 들어왔어요. 11년째 되었고요. 4학년 아이들이랑 생활하는 담임 교사입니다. 우리학교는 제가 오기 전에 설립이 되었고요. 처음에 동네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현재 한국의 교육이 입시와 성적으로 줄 세우기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동육아를 하시던 학부모님들이 만드신 학교이지요. 부모님과 토론도 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도 재미난 학교라고 지었어요. 생태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학교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각산재미난학교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어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경우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으로 분리가 된 경우가 많은데 통합교육은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합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통합교육을 잘



펼칠 수 있는 곳이 대안학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합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알아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삼각산재미난학교 통합지원 교사로 오게 되었어요.

교육철학은?

우리학교는 따뜻한 돌봄과 자유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속 학교공동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나와서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마을과의 관계를 잘 맺고 따뜻하게 서로 잘 돌보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두 번째는 배우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삶을 잘 가꾸어 나가고 살면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배우는 자유로운 배움이고요. 세 번째는 혼자 있거나 교실에서 친구들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에서 배워 나가면서 성장하여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학교에서는 소중한 철학으로 여기고 있어요.

삼각산재미난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학년 초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표를 만들고 배울 것을 정해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만들지요. 처음에는 흥미 위주로 하지만 배우고 싶

은 것이 있으면 집어넣기도 합니다.

일 년에 여행을 세 번 가요. 부모님과 떨어져 밥도 해 먹고 자기의 집도 자기가 싸고 하면서 지내요. 학기 말이 되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잘했는지 친구와는 어떻게 보냈는지, 학교생활은 잘 지냈는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평가하지요. 저희는 시험이 없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서 마무리 잔치 발표 시간을 가지면 일 년이 지나가요. 아이들이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들이를 하러 같이 가서 체험활동도 하며 공부하지요. 어떤 해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아이들과 함께 다 돌았어요. 제주도 한라산과 올레길을 졸업여행으로 다녀왔어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학기에는 시간표를 만들 때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서 수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학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원해서 선택하였지요. 아이들이 모둠을 나누어 수학을 공부하는데 좀 재미있는 수학 문제를 주었거든요? 처음에 문제 푸는 방식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문제를 다 풀면 새 것을 가져가고 계속 문제를 푸는 방식이지요. 근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문제를 풀고 문제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추석 연휴 때 수학 문제를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며 달라고 재촉하네요. 지난

학기에 수학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수학 문제를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하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로서 즐거운 일이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어요.

힘드셨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학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회의도 많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반에서 모임도 있고, 한 학기에 한 번씩 부모님 상담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마을과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학교에 관해서 회의가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학교에 오시기 때문에 저녁에 회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8시 출근인데 모임은 보통 일찍 시작해도 7시 30분에 시작하거든요. 모임을 시작할 때는 이미 출근한지 12시간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교육과정도 대한학교여서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교육과정을 아이들과 같이 만들지 않았을 때는 방학 때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드니까 학기가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하는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구체화된 교재를 쓸 수가 없고요. 또 학년마다 다르고 똑같은 학년이라도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고 아이들과 하는 교육과정, 부모님과 만나야 하는 시간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삼각산재미난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후, 본인에게 변화가 있으신가요?


많이 있지요. 저는 학교가 저희 집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도시에서 살게 되면 혼자 사는 것이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인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학교에서 집이 비교적 먼 편인데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도시인데도 시골에서 사는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학부모님과도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 동료 교사들과도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살아가는 울타리가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도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과 만나면 인사도 하고 같이 놀 수도 있어 즐거워요. 사는 폭이 더 넓어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마을활동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을까요?

싱잉볼이라고 노래하는 볼이 있어요. 밥그릇처럼 생겼는데 소리가 신비롭고 잘 퍼져서 명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종인데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구매를 했어요. 원래 아이들이랑 졸업여행을 네팔에 갈까 하고 선생님들과 2-3주 동안 갔었어요. 히말라야 등반을 하면서 다녀왔지요. 거기에서 여행 답사 기념으로 아이들이랑 수업 때 쓸려고 사왔어요. 그 후 네팔에 지진이 나서 모금해서 돈도 보내고 했지요. 지진 때문에 네팔에 못 가게 되었지만 네팔에서 구한 종인 싱잉볼은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하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수업에 집중하게 할 때 사용하곤 하지요.

앞으로 더 펼치고 싶은 활동과 추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하고 저도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하고 싶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요. 아이들에게 함께 활동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또 다 하더라고요. 한라산 백록담도 갈 정도이니까요.

우리 학교는 북한산 자락에 있습니다. 바로 곁이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1구간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걷는 수업이지요. 몇 년 전 둘레길을 1구간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걷는 수업을 했어요. 혼자서는 쉽지 않겠지만 같이 걸으니 가능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인생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24

소보사대안학교 학생들이 마을공동체의 일원이 되다

소보사대안학교 | 우이동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농아들을 대상으로 수화로만 수업하는 대안학교를 2017년에 설립하고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소보사 대안학교'이고요. '소보사'라는 것은 '소리를 보여 주는 사람들'의 준말이에요. 소보사 대안학교는 '반짝 반짝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초중고 통합학교 '봄' 학교 이렇게 두 가지 배움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대안학교예요. 저는 김주희라고 하고요. 2006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꽤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요,

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수화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때 농아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은 고등학생인데 꿈꾸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미래에 대해 그리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그 친구들한테는 다 어렵고 포기해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마음에서 그때부터 수화 활동을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수화 통역사자격증을 따고 '농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수화를 배운 지 10년 정도 지나서 아이들을 다시 만났는데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청각 장애를 가진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사이에 인공 와우 수술이라는 것이 생기고 언어 치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

수화를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의 언어가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구화로도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수화로도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아인 아이들의 자존감과 농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농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2006년도에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공부방처럼 운영하다가 아이들이 온종일 자기 언어로 마음껏 얘기하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작년에 대한 학교를 세우고 올해 학교로는 2년 차 된 거죠.

특수학교가 아닌 소보사를 선택하신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신 걸까요?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과 똑같아요. ‘우리 아이의 언어가 수화구나! 애는 수화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판단하셨는데 수화로 가르치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를 알게 되어 보내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어느 정도 구화도 할 수 있고 보청기나 인공 와우를 통해서 소리도 제법 듣는 것 같아서 일반 학교를 보냈다가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학교로 온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소보사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수학교와 소보사의 차이점은 저희는 수업을 수화로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농인들의 문화, 역사, 정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수업들이 장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놀고 활동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농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이 향상되고 인간에 대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사회 투어’라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농아인 선배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나의 뿌리를 찾는 시간을 가져요. 또 ‘긴 나들이’라고 격주로 여기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고 싶은 곳을 찾아가서 온종일 노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에 관해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만남의 광장 옆쪽으로 백운계곡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를 좋아해서 매일아침 그쪽으로 산책을 하러 가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 문제를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시도하게 했어요. ‘중계통신



서비스’ 라고 청각장애인들이 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있어요. 영상 통화로 우리 친구들이 수화로 얘기하면 수화통역사분들이 말로 대신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주민센터에 다 같이 방문해서 청소도구, 비닐봉지 이런 걸 받아서 매주 아이들이 청소를 몇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기 전의 사진과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를 농인 학생들이 주워서 깨끗해진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전과 후의 변화된 모습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걸어 두기도 했어요.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힘든 점은 장애라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편견들을 접할 때 힘들죠.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주변 어르신분들이 싫어 하셨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던진 돌멩이가 차에 맞아 차를 흠집 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고양이한테 밥을 주니까 그 고양이가 이웃 텃밭을 다 파헤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갈등들이 생기면 “장애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갈등들이 해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옆집 아저씨한테 수박도 사다 드리고 편지도 쓰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멧돼지들이 많이 살아 겨울에 멧돼지들이 배가 고프니까 내려오는데 우리 학교 쓰레기를 막 파헤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혹시 아이들 다칠까 봐 벽돌 던져서 멧돼지를 쫓아 주셨고요. 요번에 비 피해 때 여기 앞길이 다 파였어요. 길이 다 유실되고 위험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때도 아저씨가 민원 전화도 넣어주셨어요. 그런 변화들. 우리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해 주실 때 감사하고 정말 마을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람 있고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 같아요. 청각 장애란 이런 거예요, 수화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비인가로 있다 보니까 교사들 급여 같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별로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남 쪽에 살다가 강북구로 이사를 와서 저희 소보사 사무실도 우이동에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 동네에 완전히 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마을에서 함께 공동체로 지내고 가까운 동네에 이웃해 있는 사람들과 자주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이 동네 어딘가에 이렇게 수화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맨날 산책하면서 저희를 맨날 보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게 마을공동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농인인 거랑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유롭게 지내면서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놀이터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어렵풋이나마 느끼게 됐어요.

이외에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어린이집부터 쭉 있으니깐 아이들이 여기서 오래 오래 함께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요. 한 가지 바람은 여기 강북구 적어도 가까운 우이동, 쌍문동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로 인해서 수화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슈퍼도 가고 혼자 어디 갔을 때 만나는 이웃분들이 조금이라도 수화를 쓰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 그리고 “아! 내가 이 동네 사람이구나!” 라는 소속감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해서 “저기 농인 아이들이 있던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수화를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자그마한 운동들이 이 마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마을활동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같이할 때 아이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마을 지도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걸 QR코드로 만든 마을 지도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마을과 관계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



25

마을배움터, 수유재

수유재 | 우이동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 학교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되어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수많은 배움, 유연한 배움, 재미난 배움을 추구하는 마을공동체(수유재)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이동 공동육아 '꿈꾸는 어린이집'의 조합원으로 마을살이를 시작했고 '호수'라는 별칭으로 마을에서 11년 차 활동하고 있어요. 수유재의 원모임은 비인가 초등 대안학교인 삼각산재미난학교 부모들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부모교육위원회로 진행하다가, 학교구성원에 한정된 것에서 오는 부족함과 갑갑함을 느끼면서 말로만 마을 속 학교가 아니라 학교 담장 밖인 마을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자 했지요. 학교의 조직에서 나와 마을 안에서 우리 동네 문화센터, 배움터를 꿈꾸며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수유재 이름은 수유리라는 지역 명칭을 연상케도 하고, 우리의 지향을 담고자 해서 '수많은 배움, 유연한 배움, 재미난 배움' 앞 자인 이름을 따서 수유재 라고 짓게 됐습니다.

처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혼자만 하는 육아를 하다 2008년쯤 우이동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거주지가 도봉산역 근처였는데 아이를 잘 키워보려는 마음과 아이들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감행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공동육아와 마을을 동시에 만났다고 보면 되지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수유재라는 이름으로 활동은 내가 마을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첫 해는 1인 1배움을 기획해서 수유재에 들어가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먼저 경험한 회원이 기획해서 제안했던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열어나가는 서아프리 카덴스’가 기억에 남아요. 워낙 수강료가 비싼 강의를 이해할만한 수강료로 책정하니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구성원들 각각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기획된 글쓰기, 세밀화 그리기 강좌도 있었지요. 나의 욕구로 다양한 배움 들을 기획해보는 것들이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해소하는 기획도 있지요. 작년 처음 제안되었던 코딩교육은 정작 우리도 이해가 부족하여 제안자의 상세한 설명과 수업시연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팀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개설되었고 올해도 역시 진행했어요. 또 올해 흥행에 성공한 수업으로 ‘우리 마을 페미니즘 더하기’라는 강좌가 있었고, 후속 강좌로 남성들이 자신의 밥상을 직접 차릴 수 있는 실전 요리강좌를 진행했어요. 리코더 강좌는 중주단을 꾸꾸면서 전공자의 레슨방식으로 개설하여 진행하다가 소모임 형태의 모임으로 이어가면서, 최근 수유재 마무리 잔치 겸 마을 행사에서 첫 공연을 올리기도 했어요. 장수 모임인 기타 모임도 있고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만나고 배우고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 같아요. 올해 사업제안자로 참여하면서 힘들긴 해도 끊임없이 뭔가를 모의하는 건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수유재활동이 재미있게 보이는 것과 별개로 저의 배움에서도 재미가 중요한 거 같아요. 보람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배움의 속도와 생각이 다르고 또 욕구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보았던 시선들을 바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게 활동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이지 않을까요?


수유재 활동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모든 공동체와 조직에서는 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공동육아에서도 있었고, 이 학교에서도 큰 갈등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그때 활동경험이 2년차밖에 되지 않아 방법도 몰랐고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도 주고, 받기도 했지요. 공동체 활동을 했던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겠지만 마을을 떠날까도 생각했지요. 그때 마을을 떠난 분도 많거든요.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결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이라도 학교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겠다고 생각해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나의 변화는?

결혼 제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내 인생에서 나만 잘살면 됐었어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활동에서 출산과 육아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장애 문제까지도 고민하게 된 거 같아요. 12~13kg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번쩍 들어 올려 급출발하는 버스에 오를 때, 그 순간이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신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머리로 이해한 거라면 공동체 삶은 온몸으로 이해하면서 살아지게 된 그런 삶이요.

마을공동체가 생소한 분들에게 마을공동체를 소개해주시 수 있을까요?

잘 뛰는 사람이 독주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 활동을 비유한다면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좀 더디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을공동체 일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저절로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공동체라고 함은 긍정적인 역할도 많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보다는 마을공동체를 보존하는 것 때문에 개인의 어려움이 배제됐다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공동체는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나고 존중받는 개인들의 연대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6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

싸롱드비 | 우이동

2013년 가을, 삼각산재미난학교 학부모 아빠 5명이 서로의 행복과 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가 원했던 책, 음악, 영화를 담아 만든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싸롱드비 대표 차재혁입니다. 아이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강북으로 오게 됐고 18년 동안 강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삼각산재미난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보내게 됐고, 그곳에서 만난 음악을 좋아하는 아빠 5명과 공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4년 싸롱드비를 만들게 됐어요. 이 공간에서는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 다큐 영화를 보는 모임, 밴드들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음악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연을 위해 소모임들의 합주나 연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마을공동체 활동은 처음에는 음악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서울시나 강북구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간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 하는 곳에 지원하는 '서울시마을예술창작소' 사업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싸롱드비의 절반은 서점 공간인데 그곳에 있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고, 다큐유랑이라고 하는 다큐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마을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싸롱드비 운영자들이 대부분 음악을 좋아해서 싸롱밴드를 결성하고 동네의 밴드들, 덕성여대 밴드 등을 초청하여 동네밴드데이를 진행했죠. 그후로 강북음악크루라는 강북구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밴드데이, 포크데이, 국악데이, 블루스데이, 기획공연 등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이런 개인이 만들기 쉽지 않고 또한 동네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활동을 마무리 하는 전시회나 공연 무대도 많았고, 동네 주민들이 관객이 되어 여러 밴드들이 그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도 즐겁고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가기 전 계획 세울 때 가장 즐겁듯이 5명이 처음 이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기 시작 했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싸롱드비가 결성된 지 만으로 4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피로감도 쌓이고 내부적인 면에서 의견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럿이 운영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곳을 운영하는 저희들과 이용하는 분들과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거나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이 공간 안에서만 활동하다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면서 구 단위 혹은 동 단위 다른 사업을 하는 소모임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알지 못했던 모임들이 이 동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됐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연계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

다른 영역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좀 제대로 갖춰져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동네에서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한다면 재미로만 한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재미가 가장 밑바탕이긴 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음악을 접하는 음악인들도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10년, 20년 긴 시간 동안 똑같은 활동만 하지는 않겠죠.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는 변화된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 전설적인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





27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問' 'moon'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 우이동

강북여성주의모임 '문'은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강북의 여성들이 다양한 주제로 함께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북여성주의모임 '문'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 회원들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2015년부터 한 달에 한번씩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작은 모임들이 이어졌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우리 모임 안에서 이름을 공모해서 강북여성주의모임 '문'이 됐는데 문은 사람들이 들고나는 문(門), 계속 질문을 던지자는 의미의 문(問), 그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달의 문(moon),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문'에서 하는 활동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성주의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이런 여성주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참여하게 됐죠.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요?

2015년부터 여성주의 책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했어요. 그러다 2016년에 '성평등'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지역의 여성들과 같이 했는데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 만나보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확장이 된 거죠. 2017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했는데 '문'도 참여를 했어요. 덕분에 그전까지는 지역에서 일 년에 한 번 정도 페미니즘 특강 같은 강좌를 들을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4회기 짜리 강좌를 열었어요.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올해는 여성주의 책임기 모임, 밥상과 수다 모임을 매달 하고 있고 세계여성일날, 성평등주간, 여성폭력추방주간 등에 영화상영, 여성주의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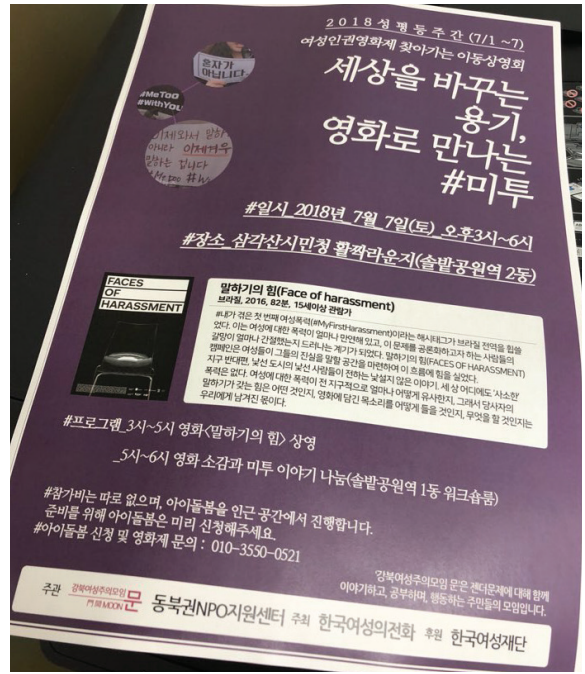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저는 공감 받는 게 좋았어요. 문에 와서 육이나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고민을 얘기하고 공감 받는 것만으로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여성주의로 읽고 나누면서 "이해 돼"가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라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공감하고 서로 연대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든든함과 위로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나보다 아이를 위하는 생각이 컸어요. 얼마 전 여성주의 타로 워크숍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힘이 돼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보람된 거는 제가 페미니스트로 여기 강북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거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모임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을살이가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을 때도 나중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고 싶고,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성으로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성주의가 좀 설명을 해준 거 같아요. 내가 못나서나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고 여성들이 다 이렇게 살고 이게 힘든 거고 여성들의 탓이 아



나라는 것들을 얘기해 줘서 위로가 되고 아파서 왔다가 수다 떨다가 나아서 집에 가고 이런 거 때문에 힘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좋아요.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저는 이번엔 했던 여성주의 타로 워크숍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타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워크숍들을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책 읽기 모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쓰기 모임도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우리도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나한테 집중하기 힘들 때 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럴 때 굳이 감정노동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대외적으로 확장하고 그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강북에 여성들이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북에 사는 여성들이 알고 우리처럼 찾아오고 위로 받고 힘 받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8

아이들의 놀이터, 재미난 도서관

삼각산재미난도서관 | 우이동

재미난 도서관은 삼각산 재미난 학교(부설)기관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재미난 놀이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4년 차 된 재미난도서관에 있는 장서영이고요, 저희 마을에는 별명을 사용하는데 저는 '감자'라고 합니다. 재미난도서관은 사단법인 재미난 마을에서 운영하는 삼각산재미난학교 부설기관으로 2014년에 만들어졌고요, 학교안의 도서관이지만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하고 내부에 미끄럼틀도 있고 해서 야생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직접적인 계기라면 재미난 학교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고요, 고등학교 때 '폼'이라고 청소년문화공동체라는 곳에서 활동했어요. 주말형 대안학교로 주말에 참여해서 마을 축제도 기획하고 인문학 공부도 하면서 토론도 하는 마을 활동들을 했었어요.

삼각산재미난도서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도서관 활동으로는 정기적으로 도서관 잔치가 1회 있어요,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장터도 열고 먹거리도 함께 나눠 먹고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그림책도 읽어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게 이번 주에 하는 도서관

파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2년 전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만화였고 올해는 생일파티가 주제예요. 보통 도서관 잔치는 학부모 학생, 주민들이 100명~150명 참여하고 있어요. 학기 중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방학 중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맡기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연중에 제일 크게 하는 행사로 도서관 캠프가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15명씩 모집해서 1박 2일 진행하고 아이들 수요가 많아서 2회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5명씩 모둠으로 동네를 다녀오게 해서 미션수행을 하면 열매를 주는데 열매의 숫자에 따라 영화 볼 때 간식 수가 달라지는 놀이를 하고 밤새 책

도 읽고 하는 겁니다. 그 외로 일회성 활동은 만화책도 만들고, 과학실험도 하고, 양말로 인형 만드는 일, 전래놀이, 마당놀이, 자전거 타기도 했어요.

도서관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재미난도서관의 모든 행사는 학생들과 5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주시고 최대한 돌아가면서 활동해주시니다. 제가 회의로 자리를 비울 때는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학년별로 학부모님들이 일주일 한 번씩 청소도 해주시고 있어요.

활동하시면서 즐거운 점이나 힘든 점은 어느 것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도서관 캠프예요. 거긴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 게 우선 보람된 거 같아요. 최근에는 6학년 아이들이 저랑 보드게임을 하는 게 재미있다고 하면서 저 대신 청소를 해주고 놀아 달라고 할 때 또 고학년이 저학년들을 돌보고 챙겨주고 올면 달라고 싸우면 말려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재미있어요. 특별히 프로그램하지 않아도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책 읽고 하는 게 순간순간이 즐거운 거 같아요. 아이들하고 힘든 점은 없는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일이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나요?

계속 마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가 느껴지는 건 없어요... 마을 활동하는 게 일상 같아서요.

앞으로 재미난도서관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마을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마을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 부설로 있고 학교의 아이들만으로도 많다보니 마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는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구석구석 활동가 분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고 좀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함께 하면 좋겠어요. 📖





29

우리들의 이야기, 라디오로 말한다.

강북FM | 인수동

강북구의 지역 공동체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방송 제작 방법을 교육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부터 엄마, 실버세대까지 모든 세대의 이야기를 만들어 팟캐스트에 등록합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북구공동체라디오(강북FM)에 6년째 발을 푹 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모니터 세상이 힘들어서 새로운 일을 찾았었어요. 2010년 북한산 둘레길이 개통되면서, 둘레길운영단에 소속되어 북한산 둘레길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지도를 만들고 홍보하는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 해설사랍니다.

강북FM은 올해 7년 차가 되었는데, 주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공동체 라디오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라디오 많이 들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나도 이런 DJ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꿈꿔 봤을 것 같아요. 이곳은 어린이부터 엄마, 실버세대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직접 방송을 배우고 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큰 방송국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우리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참여하여 제작하고 방송하는 곳이에요.

강북FM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출근길에 오늘은 내가 라디오 스타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을 보았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 재미있는 일을 우리 동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 DJ 교육을 받고 참여하



게 되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전공이 방송영상이었고, 대학교 때 아마추어 무선통신 HAM을 했었거든요. 개인 호출 사인도 가지고 열심히 했었어요. 아마추어 무선통신이 라디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수막을 보지 못했다면 마을공동체도 몰랐을 것이고 강북FM에서 활동도 못했겠죠.

강북FM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여기 강북FM은 누구나 와서 만들어 보는 공동체 라디오예요. 주민이 직접 방송을 하기 위하여 미디어 교육에 많이 힘쓰고 있어요. 방송을 제작하려면 먼저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영향력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도 있고요. 가정주부, 직장인, 최근에는 실버세대까지 라디오 교육을 많이 듣고 계세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DJ 교육이죠. 요즘은 영상이 핫한 매체라 발맞추어 가기 위하여 영상 교육도 시작했어요. ‘한 달이면 나도 다큐 PD’, ‘영상 제작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강북FM은 문턱이 낮은 마을 미디어 공동체예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강북 FM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방송은 주로 연령대별로 진행해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직접 헤드폰을 끼고 내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신나거든요. 그래서 동화의 한 쪽지를 같이 읽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중학생 친구들은 사생활 프로그램은 그냥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고딩들의 야자타임’이라는 제목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엄마들은 육아맘들이 나올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오전 시간이지거든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잠깐 스튜디오를 방문해 ‘동화 보따리’를 진행해요. 엄마들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로 동화속의 캐릭터가 되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동화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듣다 보면 중간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동요를 같이 틀어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또 하나는 며칠 전 ‘오늘만’이라는 카페에서 공개 방송을 했어요. ‘무엇이든 읽어주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핫한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라디오 극장’이라는 건데요. 대본도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 쓰시고, 성우처럼 연기도 하시면서 라디오 극을 만드는 거예요. 벌써 시즌 3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역의 많은 단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목이 ‘후아유’이고요, 단체의 대표님이나 관계자를 모시고 마음껏 자랑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단체 소개가 빠져서 서운하셨다면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즐겁고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즐거웠던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이 공간이 생

긴 거예요. 이 공간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데요. 예전에는 우리만의 공간이 없어서 더부살이 했거든요. 주변 소음에 신경 쓰지 않는 회의실 빌리는 어려움 없이, 눈치 보는 것 없이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생겨서 스튜디오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제일 좋고요. 지나시다가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이 이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나무 책상을 목공소에서 운반하던 그 순간도 너무 기억이 나요. 마을목수공작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을 해 주셨어요. 선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 나눔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도 큼직해서 가지고 올 때 엄청 무거웠거든요. 마을목수공작단 지하에서 꺼내서 도로를 지나고 열심히 들고 와서 여기 딱 왔을 때 그 순간 너무 행복했구요. 또 좋았던 거는 바로, 진짜 자랑할게요. 올해 2018년 서울 공동체 활동 부문에서 상을 받았어요. 6년간의 보람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힘든 점도 있으실까요?

강북FM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동안의 공간마련과 방송 장비 구매 등의 기초적인 고민에서, 일이 많아지고 인원이 늘면서 서로가 맞대고 다음 것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까지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디테일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서로 배려하고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강북FM 활동 전과 후의 변화가 있다면요?


제가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여기에 와서 만나면서 '아 이런 삶의 모습도 있구나.'를 느껴요.

다양성을 체험하게 되는 거 같아요.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른데 즐거운 모습도 있고, 어려운 모습도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이해해야 하는 것도 있고 배려를 해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과정이 제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장점 중의 하나가 저의 모든 말이 녹음을 통해서 기록되는 건데, 물론 편집을 통해서 왜곡돼서 나갈 수 있지만, 그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말 했나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내 말에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되고요. 현실에서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습관이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요?

'마을에서 미디어 활동이 있다면 강북FM이야!' 강북구 공동체라디오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브랜드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이 스튜디오에 방문하셔서 방송했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더 많이 찾아가는 공개방송, 찾아가는 강북FM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르신들이 오기 힘들잖아요. 장소가 좁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또 한빛 맹학교에서 방송할 때 보람 있었거든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미디어였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북FM, '어디선가 누군가에 미디어가 필요하면 달려가는 홍반장' 같은 그런 곳이 될게요. 





30

‘엄마들의 품앗이 모임’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공동육아 도토리집 | 인수동

마을의 어른들 모두가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육아 도토리집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소연이고요. 강북구 인수동에 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2001년도부터 이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는데, 공동체 선배들이 아이들을 낳고 가정에서 키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계속 결혼하기 전부터 봐 왔어요. 그러다가 저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키우는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품앗이를 하게 됐어요. 2011년도에 품앗이를 하다가 함께 어린이집을 만들어보자 해서 품앗이를 같이 했던 가정들이 모여 공동육아 ‘도토리집’을 만들게 된 거예요.

도토리집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되고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건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소망합니다. 생명, 평화를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는 삶을 지향하고 있지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명 평화 공동체를 만들었지요.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찾집도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마을 밥상도 만들

있고요. 도토리집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사는 모습들이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도 했지요. 소식을 듣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같이 활동하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제공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여섯 분이예요. 아이들은 스무 명이고요. 세 살에서 일곱 살까지 배우면서 자라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이 겹칠 수 있는데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집을 구해 보자”, “좀 더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보자.” 하면서 계속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1년 6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준비를 해서 4시까지 저희 집에서 품앗이 했지요. 저희 애가 아플 때에는 집을 싸서 다른 집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두나 이런 전염병은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걸 또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요. 집에서 품앗이 육아를 할 때가 더 보람 있고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 전과 후, 본인에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 혼자만 변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변했지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한 마음이 되어 활동했어요. 마음이 우리나라와 함께 한 마음으로 활동해 왔다는 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었는데 같이 활동하면서 그것들을 삶으로 드러낸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변화라던 안정된 터전이 생긴 것도 큰 변화가 되겠지요. 아이들이 스무 명으로 늘어난 것도 변화가 되겠지요.

앞으로 포부라든가 펼치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육아하는 일을 계속해 가고 싶어요. 초창기 때 지냈던 정신, 마음을 잘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아이를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도 같이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희가 인가를 안 받았는데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책임성도 더 갖게 되겠지요. 일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활동의 추억이 담긴(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물건은 아닌데요, 아이들과 함께 산책한 공간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곳이지요. 우리 마을은 산이 가깝다 보니까 소음도 적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산에서 잘 놀아요. 가까이 있는 북한산과 아이들과 함께 활동한 골목길 이런 데가 저에게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에요. 📷



31

마을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마을소리 | 인수동

음악을 좋아하는 마을청년들이 모여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마을 축제를 엮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정은이고요. 음악을 공부했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을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하우스콘서트' 라는 공연 프로그램에서 녹음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마을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마을에 살면서 보니까 동네에 돌잔치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다들 실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공연하면 좋겠다 싶어서 마을소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을소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저희는 주로 음악회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해부터 했어요. 일 년 동안 세 번의 마을소리 어울림 음악회가 있어요. 그 때마다 공연 팀들이 팀 별로 모여서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공연 하면서 모임을 진행했어요. 매 달 '작은 소리'라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여섯 번 정도 공연한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마을학교 아이들도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며 들으면 그 자체가 보람이고 즐거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익환 목사님의 시를 작곡한 '평양으로 갈거야' 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노래를 듣던 관객들이 올해의 꿈을 얘기하던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활동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신가요?

힘든 점은 여러 가지 필요한 악기와 음향 물품들을 빌려서 공연 장소에 갖다 놓고 공연하고 나서 다시 가져다주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공연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편히 공연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없어서 그런 게 좀 고민이 돼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다면요?

전보다 많이 바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멤버들이 마을에서 다들 얼굴 보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과 후로 나누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음악적 교류가 전보다 더 활발해졌어요.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마을소리에서 창작된 노래를 많이 만들어 그 노래를 녹음을 해서 음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32

사람들이 마주하는 곳, 마주이야기

마주이야기 | 인수동

강북구 인수동 북한산 자락에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정감있는 마을 찾칩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주이야기에서 바다꽃지기로 활동하고 있고 이름은 시은이라고 해요. 작년 2월에 처음 도와주다가 지금은 지기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유치원에서 5년간 일을 했었어요. 왕복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을 하니 지치고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강북구의 밝은누리에서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여기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도봉구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밝은누리에서 하는 강의 들으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살고 싶다, 자취하면서 맨날 혼자 밥 먹다보니 혼자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밝은누리를 알게된 후, 강북구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계속 출퇴근을 밖에서 하니깐 강북구를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마을활동하면서 주민분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강북구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주이야기는 어떤 곳인가요?

사실 이 자리에서 시작된 거는 작년 2월부터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516번지에 있었어요. 마을사랑방처럼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전자레인지나 몸에 안 좋은 것들 사용하

지 않아요. 아이들보면 요즘 현대병인 아토피가 되게 심하
 잦아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유기농 재료로 최대한 아이들
 도 엄마들도 다 같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재료들을 엄
 선해서 사용해요. 원래 마주이야기가 있던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1년 넘게 찾집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려
 면 굳이 약속을 잡아서 멀리 있는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해
 야 하고, 동네에서 늦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늦게 오거
 나 잘 마주치지를 못하니까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시 생기고 나니까 오며가며 서로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
 아요. 새로 시작하면서 마주이야기 사장님인 언니가 동물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식을 하고 있어 채식 찾집을 열게
 되었어요. 저도 원래 채식에 대해서 큰 관심 없었는데, 요
 즈 동물들을 빨리 키우려고 호르몬 주사를 넣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을 도살하잖아요.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지
 않고 먹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런 현실들을 알리는 활동
 가라 생각하며 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빵은 모두 우리통밀로 만들어요.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밀보다 우리 밀은 훨씬 소화가 잘되고 좋아요. 마을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 씨앗잔치를 했어요. 씨앗잔치는 여
 기 공사하기 전, 이제 곧 찾집을 열거라는 것을 알리고 같
 이 마음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후원금도 모으고, ‘늘
 벅’ 신청을 하겠다는 종이도 받고, 잔치를 열어 공연도 하
 고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메뉴가 있으면 좋겠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공간을 하고 싶은지 모여서 마
 음을 나눴어요.

공사는 흥천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흙손’이라고 생태건
 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직접 나무로 공사를
 하고, 마을 주민들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울력을
 해서 다 같이 공간 만들고, 책도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오고
 싶은 것 다 같이 모았어요. 마을주민들이 모두 다 힘을 모
 아서 만들어진 공간이지요.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일이 있나요?

마주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모임을 계획하는 것들이
 요즘 저한테는 가장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시가
 있는 밤’을 했어요. 밤에 전기를 사용하지 말고 촛불을 켜
 고 함께 시를 읊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직접 시를 지
 어온 분들이 있었어요. 지어온 시를 보면서 저런 감수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평소
 잘 모르던 사람들도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좋아요. 주민들이 좋아해 줄 때 되게 보람을 느껴
 요. 서울에 있는 다른 마을 카페에 탐방을 간 적이 있었어
 요. ‘시가 있는 밤’이 끝나고 나서 “혹시 이런 탐방 있는데

같이 가고 싶은 분들 있나요?” 하고 모집해서 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것,
 마을모임이 있으면 서로 많이 알게 되고 친해지는 것들을
 옆에서 보는 게 좋고 뿌듯해요. 일단 제가 제일 좋은 것 같
 아요. 사실 이 공간관계망 지원사업도 아는 언니가 소개시
 켜줘서 지원해본 것인데 처음 하는 거라 글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
 다가,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 하고 신청했
 는데 돼서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일단 내가 이걸 해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고 여기에서 일 하면서 누구를 초청해
 서 강의를 하는 것들을 이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재료로 하다 보니 재정이 부족해서 강사를 모
 셔서 무언가를 하기 어려웠는데 강북구에서 지원을 해줘
 서 하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재능도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내년에 뭐할까 맨날 생각해요. 여기에 청년들이 의욕이 많
 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내년에 여기
 서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좋아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대끼고 살다보면 제 문제가 드
 러나잖아요. 깊은 관계 속에서는 저의 약점이나 한계가 많
 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것이 힘들죠. 일
 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자주 놀러오세요. 여기가 밝은 누리사람들만을 위한 공간
 이 아닌데, 편견이 있어 잘 안 오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그
 령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근처 사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거든요. 언제나 늘 열려있는 곳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은 밝은누리 회원이 두 명이라면 여덟 명은 다른 분이 오
 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33

사회와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밝히는 ‘밝은누리’

밝은누리 생명평화공동체 | 인수동

밝은누리생명평화공동체는 2000년 초 인수동에 설립된 자생적 마을공동체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후세에 대한 생애 교육, 의식주 공동생활을 통해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전파하는 마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2000년도에 밝은누리생명평화공동체를 인수마을에 만들고 그때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요. 밝은누리 공동체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을 회원들과 함께 조율하며 밝은누리 회원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생명을 생명답게, 생명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향을 가지고 그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마을을 만들어 평생 꾸준히 학습하고 후세들을 교육하며 의식주 공동생활을 통해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와 세상에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밝은누리생명평화공동체는 1991년 청년들이 대학에서 동아리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삶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일관성 있게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노동일도 하고 장학금을 벌어들여 내기도 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결혼과 진로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나의 신념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동의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걸 가정 안에서 구현해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34

빌라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되다

수유현대빌라 | 인수동

수유현대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수유현대빌라에는 총 66세대의 중년 이후 세대와 젊은 세대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빌라에서 정겨운 동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빌라가 생긴 뒤 벌써 32년 됐어요. 특징이라면 위치가 산 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성격이 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세요. 떠드는 분도 없고 그냥 각자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사시는 평범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특징 있는 빌라라고 할 수 있죠.

이동이 많지 않은 빌라예요. 보통 15년 이상 사셨어요. 하나의 특징이라면 환경이 자연 쪽에 있다 보니까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사시는 데 편안함을 느끼시는 연세 드신 분이 주로 많고 그 동안 젊은 세대가 별로 없었어요.

빌라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었나요?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생각도 안 했을 거고, 해보려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함께 사는 젊은 부부들이 저희 빌라에 이사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동체를 알려주고 새로운 사업을 알려주면서 빌라 운영 방안에 관심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죠. 그동안에는 무관심했다기보다는 그쪽에는 마음을 안 썼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나은 공동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누려보자 그러면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

저희가 공동체 활동을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죠. 작년에는 놀이터에서 비누공예 만들기를 했어요. 총무님이랑 봉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일이었어요.

올봄에는 마을밥상이라고 해서 마침 이사 가서 빈집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행사였어요. 처음으로 온 주민이 모여서 식사한다고 초대를 했고 음식은 “나는 이걸 해 오겠다.”, “나는 저걸 해 오겠다.” 하시면서 각자 준비해 주시고 굉장히 푸짐한 음식이 준비되었어요. 먹고 남은 것은 싸 드리고 그랬거든요. 정말 집안 가득히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빌라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또 그날 오신 분들 전부 가족 별로 소개하고 몇 동에 사는 누구다 인사하면서 그냥 “이 빌라 사는 주민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게 되었죠.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 “처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이게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우리 마당에서 ‘아나바다’라고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한쪽에서는 떡볶이랑 꼬치구이, 부침개 등 먹거리를 판매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누공예를 하는 마을공동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빌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도 오시라고 조그만 A4용지에 인쇄해서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도 오셔서 함께 음식을 드시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을밥상을 했는데 그때는 각자 준비해 오거나 그러지 않고 사회적 기업으로 음식 하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뷔페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나오시는 세대, 새로운 얼굴이 한 가정, 두 가정씩 늘어요. 이 사업을 계속해 간다면 정말 나중에는 전체가 한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때가 올 거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요?

가장 즐거운 거는 저희 빌라에 아이들 소리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애들이 들어오면서 베란다에서 아빠 갔다 오라고 인사하는 소리, 밑에서 친구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

끼기에는 애들의 소리는 예쁘잖아요. 들으면 기분 좋고 그 애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애들도 그랬던 생각나고, 제일 기쁜 건 그거 같아요. 젊은이들이 함께해서 젊고 아기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거. 또 놀이터에서 애들이 자기들 끼리 장난하면서 노는 것을 보는 거 자체로 기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고 젊은 엄마들과 인사하고 그런 게 제일 기쁜 거 같아요. 놀이터에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보람이라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서로 인사없이 그냥 지나 다니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을 때는 마지못해서 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요. ‘왜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미소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가?’ 그게 큰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밝아지고 서로 만나면 웃고 인사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쁜 일이에요. 앞으로 좀 더 생기고 있는 빌라로 변해 갔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고 잠잠은 것도 참 좋지만 즐겁고 활기 있는 빌라로 변해간다면 큰 기쁨이죠.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을 때는 무언의 시위처럼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도 전에는 다 활동했던 분들인데 함께 와서 격려하고 그래





야 하는데 일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회피하는 것을 볼 때는 조금 씩씩하죠. 저도 성당에서 활동하지만, 전임들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유쾌하게 신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서서 함께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적거든요. 그분들의 말은 자기들이 나서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이 된 사람들은 전에 했던 분들이 와서 힘으로 함께 해주고 말을 한마디라도 더 보태 줄 때 힘이 되잖아요.

마을공동체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그거를 못 해주실 때 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제 나이 또래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같이 활동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제가 60대니까 60대하고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20, 30~40대 엄마들의 생각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그랬어요.

이런 젊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되고, '나도 이런 거는 좀 알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죠. 저로서는 그런 분야로 눈을 돌리고 알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그게 또 수확이죠.

이외에 모임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

이제는 함께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동안 이 안에서만 활동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나들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애들이 점점 늘어 가면 애들의 작품을 놀이터에 전시하고 싶어요. 가족사진도 놓고, 애들이 놀고 있는 사진도 찍어서 사진 전시도 하고, 애들 작품도 놓는 전시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친목을 다지는, 얼굴을 알아가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모습을 하나 이런 것도 한 번 전시를 해 보고 그러면 주민들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아요. 웬지 잔잔한 기쁨 그런 게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35

어린이 바른먹거리 배움터 알아보기

어린이바른먹거리배움터 | 인수동

마을 밥상에서 자주 먹는 현미잡곡밥, 제철 나물, 바다 풀, 우리네 장과 김치에 대해 배우면서 알아보고 만져 보고 직접 만들어 보며 건강하게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밥상을 나눕니다.

선생님과 활동하시는 모임을 소개해주세요.

작년 6월에 인수동으로 이사 와서 지낸 지 일년 반이 되었습니다. 마을밥상 모임으로 이번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해서 ‘어린이 바른먹거리배움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민제안사업 관련 소통이나 행정은 제가 주로 맡아서 하고 배움터 준비는 6명의 밥상지기들이 함께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사 와서 마을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모심지기라고 자원 활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을 짓기 시작했고, 지킴이로 저녁에 밥상을 함께 정리하다가 올해 2월쯤에 밥상지기 제안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마을밥상에서 함께 밥 짓고 밥을 먹는 공간을 꾸리고 있어요. 1주일에 한번 모임을 통해 필요한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해요. 차림을 짜고 식재료를 주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식재료는 대개 생협에서 공급받지만, 땅과 생명을 살리려고 토박이 씨앗으로 농사짓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밥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서 직거래로 공급받기도 하고 꾸러미를 활용하기도 해요. 밥상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올해 ‘어린이 바른먹거리 배움터’를 통해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함께 공부하고 점심 밥상을 나누고 있어요.

먹거리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나요?

이 사회의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랑 비슷했어요. 배달음식,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지요. 그러다 생협을 알게 되고 이용하게 되고, 일터에서 먹거리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먹거리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른 넘어서 갑자기 아토피가 심하게 생기기도 해 단식하고 먹거리를 조심하면서 몸으로 배우게 되었고요. 마을밥상에서 밥을 먹고 어린이 바른먹거리 배움터를 하면서 나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넘어 온 생명이 담긴 먹거리, 온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밥상과 배움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먹거리에 대해 배우는 대로 먹고 실천하는 데 변화가 빨라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맥에서도 건강한 밥상을 차리시나요?

네. 집에서도 똑같이 해서 먹어요. 주말에 가끔 나가서 먹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일에 밥상에서 함께 밥 먹고 주말에는 직접 해 먹어요. 이웃 친구들과 서로 초대해서 함께 먹기도 해요.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

배움터 하면서 아이들을 새롭게 만나니 즐거워요.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먹어도 볼 수 있게 준비했을 때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과 눈빛을 보면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소감 나눌 때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나누며 더 맛있게 밥 먹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 있고, 기분이 좋아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겠네요?

아이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게 재미있었다고 해요. 제철 나물을 앞으로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바다풀 이야기 나누고는 김은 참 좋은 거 같라며 식재료에 대한 좋은 마음들을 표현해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힘든 점이라기 보다, 배움터를 올해 처음 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함께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올해는 저학년이 신청을 많이 해서 저학년 친구들이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짰어요. 전 학년이 함께 할 거라면 고학년들도 잘 들을 수 있게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배웠지요. 내용은 같아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다는 것을 진행하면서 알았거든요. 





36

도시재생 희망지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어진이 마을을 만나다

어진이마을주민모임 | 인수동

어진이마을주민모임은 동네와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주거, 교육, 돌봄, 문화, 건강의료, 먹을거리, 주민편의시설과 공간, 골목상권 활성화 문제들을 주민의 참여와 주도로 해결하여 더불어사는 공동체 동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조직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반찬가게 협동조합에서 밥 짓는 일을 하고, 현재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어진이마을에서 총무를 맡은 임은영이에요. 어진이 마을은 '어진 사람들이 오래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동네사람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어진이마을은 한신대에서 송암교회, 가오리사거리, 국립 재활원과 가르멜수도원 경계까지의 인수동 12개통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도시재생희망지 활동을 거쳐 지난 9월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6년 인수동으로 이사 와서 사업지를 옮긴 것이 계기였어요. 북한산을 배경으로 예쁜 동네인데 사람이 다니질 않고 어두워지면 시골처럼 밖에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듣게 됐어요. 이 동네가 외진 동네도 아닌데 조용하고 움직임이 왜 없을까를 생각 하던 중 도시재생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17년 3월에 주민모임이 있다는 걸 듣고 합류하게 됐어요. 주민모임을 통해서 왜 도시재생이 필요한지도 알게 됐지요. 마을이 활성화가 되려면 스스로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일들이 생김으로써 더불어 마을이 활성화되고 잘사는 동네, 살고 싶은 동네, 우리가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는지

저희가 15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반찬 만들기 동아리 ‘동네부엌’이고 ‘어집’이라는 태극권, 차를 마시는 ‘다담’, 한의사님이 이끄는 동아리 ‘건강 한 이야기’, 주민이 스스로 지금까지 하는 도서관 모임이 있어요.

의사, 한의사, 예술가, 디자이너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건강모임은 한의사가 주체가 돼서 했고 태극권을 배우고 싶을 때는 현재 하고 계신 분이 주민들과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희망지 사업을 하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사업도 했어요. 주부들은 항상 반찬 만드는 일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을 포함해 10명 정도 되는 주부들과 반찬 만드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나누는 행사도 했고 장 담그는 일이 생소한데 특히 젊은 아기 엄마들과 같이 고추장 담아 보는 일도 했어요.

협동조합 하면서 나름 많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사는 동네에 누가 살고 어떤 동네인지 몰랐어요.

진짜 이웃을 만난 거예요. 가까운 이웃을 만나 그분들과 대화했고 동네에 어렵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있다

는 걸 알게 됐고 서로서도 돕는 마을, 옛날 시골 마을 생각이 많이 났어요. 도시재생희망지라는 것은 득도 없고, 생

기는 것도 없지만 주민들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뭔가 나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롭고 행복하거나 이곳

에 내가 살았구나 정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마을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어요.

어진이마을 사랑방에 그동안 활동했던 사진들이 벽에 가득 붙어있어요. 인수동 주민이고 어진이 마을 주민이면 누

구나 항상 이용 가능한 공간이에요. 소모임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전화번호(02-994-3690)로 연락해

말씀드리고 이용하시면 돼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생업을 하면서 마을 활동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음식 만드는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대표님과 함께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 활동과 주민 회의에 꼭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고 내 일

을 조금 접어 두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다른 분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이고 엄마이다 보니 저녁만 되면

매일 나가야 하는 것과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마음을 바꿔보고 우리 마을을 잘

만들고자 하는 건데 남편과 아이에게 이걸 이해시키면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요. 생업활동하면서 어

렵고 힘든 일은 그냥 주민이 아니라 주민의 주체가 돼서



주민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 총무, 마을활동가도 있지만, 마을 행사나 주민 사업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스스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역할이거든요. 대표님도 직업이 있고 저도 조합에서 저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입장이겠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가면서 즐겁게 해나갔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꼈고 도시재생이 도시 개발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다른가요?

그동안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나가고, 개발의 결과와 이익들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되었잖

아요. 또 타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만들어지고, 담이 놓이는데 도시재생

은 현재 사는 마을 주민과 현재 가진 우리들의 주변 환경을 가꾸고 우리가 잘살 수 있는 마을, 우리가 원하는 마을,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진이 마을을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아요. 이 마을에는 어르신도 많지만, 빌라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 젊은 아

기 엄마들이 많아요. 초·중·고등학교도 많지요. 우리 스스로 동네를 잘 살게 만들고, 잘 활성화하면 이사 가지 않

고 계속 살 수 있는 팬클럽 마을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매일 보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마을에 왜 내가 필요한지, 이 마을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그런데 그것을 다 공감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현재 도시재생에서 활동하

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도시재생 모델이 수유1동이나 어진이 마을이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어진이 마을이 정말 멋지다는 말을 듣는 것이 꿈과 희망이

예요. 



37

숲놀이 육아 공동체, 토닥토닥

토닥토닥육아공동체 | 인수동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공통된 고민을 갖고 시작한 모임으로 숲과 자연에서 공동 육아로 자녀들을 키우며 활동하고 있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3년부터 강북구에 있는 여러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동하고 있는 마을교사 김세진입니다. 통일을 주제로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공동체는 2012년생 영아 엄마들의 모임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공통된 고민을 갖고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 안에서, 자연과 접하면서 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 모임, 엄마들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빠들도 함께 하는 모임으로 발전했고 연 2차례 이상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족공동체 여행도 실시하고 있어요.

토닥토닥을 시작하시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궁금해요.

토닥토닥은 육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떤 것을 주어야 할까.' 부모로서 겪는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고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모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또 자연에서 함께 키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뜻을 모았어요.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만나며 숲놀이를 하면서 토닥토닥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음알음 알아보다 보니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들이 육아의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고민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마을 교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강북구의 숲과 유희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했어요. 이러한 모임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면서 구성원들이 친해지게 되었고 가족모임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일 년에 두 번씩은 가족들이 같이 MT 형태로 1박 2일 다녀오기도 하고 아빠들끼리 따로 모여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활동하면서 즐거웠거나 보람 있었던 점은요?

저희 모임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였어요. 당연히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임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당시에 특별한 프로그램이란 것은 없었어요. 자연에 데리고 나가 자연에 풀

이놓고 자연스럽게 놀도록 환경을 마련해준 것뿐이었어요. 일 년 정도 활동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많이 좋아지고 부모님도 함께 치유가 되어 지금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저희 모임의 구성원들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다른 모임에 가면 꼼꼼히 챙기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깊은 정은 있어도 잔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강북구에 토닥토닥에 대한 소문이 나서 어머니들이 연락하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보다는 자유롭게 놀면서 지내고 특별한 활동은 없거든요? 우리 회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거나 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경향이기에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의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 몇 번 오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모임 구성원들의 성향 상,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일단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폐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토타토닥 모임 전과 후, 변화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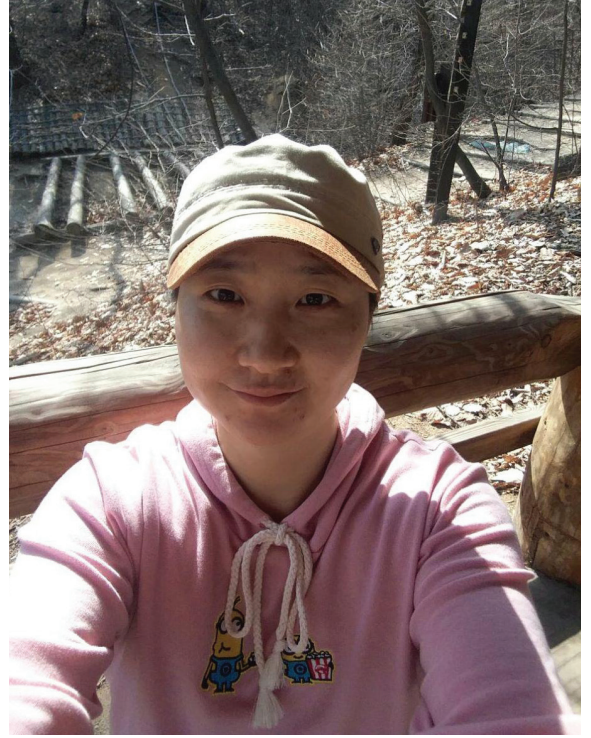
저도 그렇지만 저희 모임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좀 든든한 뺨 같은 것이 생긴 느낌이라고 할까, 내가 힘이 들 때 기대도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들도, 저 역시도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강북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강북구가 참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희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구요. 그런 것이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지내다 보면 숲이 너무 좋아요. 그전에도 좋아했지만 숲의 위대함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지요. 또 저희가 숲교사가 되는 과정을 제안하여 숲교사 심화교육을 받고 활동하다 보니까 저를 숲교사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쨌든 발을 들여놓고 마을 안에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현재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소모임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모임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된 연결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북구는 소모임이 잘 되어 있어서 연결망을 통해서 더욱 튼튼한 강북 마을이 되고 그것이 뻗어나 더욱 튼튼한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8

엄마와 아이들의 꿈터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작은도서관함께놀자 | 인수동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뜻을 모아 만든 공간입니다.

본인 소개와 모임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함께 놀자'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 신미경이라고 합니다.

함께놀자 도서관은 아이들과 어른이 자유롭게 와서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 프로그램, 마을과 함께하기 위한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기타동아리, 동화보따리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작은 도서관 함께 놀자'에 아이를 보내면서 도서관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모임에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작은 도서관 함께 놀자'는 동네 사람들이 주인이고, 운영진이고, 선생님이면서 모임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는 마을 복합생 활거점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오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다양한 배움 공간이고, 오전에는 공동육아모임, 책 읽기 모임, 기타 등 소모임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변 이웃들이 책을 빌리러 오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러 오면서 작은 골목이 북적북적해졌고 책 읽기 모임, 공동육아모임, 반찬 모임 등이 '작은 도서관 함께 놀자' 공간에서 만들어졌어요.

동네, 이모, 삼촌, 누구 엄마, 형, 누나들이 선생님이 되어 '책과 놀자'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인수동 방학교실'도 만들어서 처음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킴이 선생님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마을배움터'와 우리동네의 여러 배움터를 직접 방문해보는 '동네밧네'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활동 중 즐거웠거나 보람 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기타동아리 활동이 재미있고 선생님들과 같이 도서관 홍보도 하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만나면 농담도 하고 생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보람 있었다면 일단은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동네에 나올 때 웃도 갖춰 입고 나와야 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동네를 다닐 때 아이들이 알아보고 엄마에게 "우리 가르쳐 주시는 책과 놀자 선생님이야"라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무척 뿌듯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니 그것이 보람되고 좋아요.

활동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몇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문 닫을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분께 말씀드렸더니 월세를 해결해 주셔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지킴이 활동만 할 때는 별로 힘들거나 바쁜 줄 몰랐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일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몸이 피곤할 때 다른 일도 같이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도서관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서로 소통하니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다면요?

온전한 가정주부에서 이제는 나만의 직업이 생기고 활동할 기회를 준 곳이 도서관이에요. 강북구는 혁신지구로 마을 교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제가 마을 교사도 되고 그것이 학교에 나가 보드게임 수업을 하게 되는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엄마였는데 이제 엄마도 공부하고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니까 좋아하고, 특히 저희 친정엄마

가 많이 좋아하시니 그것이 좋아요.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외에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펼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타동아리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어 좋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들이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돈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보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킴이 선생님들이 하루에 두 분씩 1, 2부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니 만나기도 어렵고 잘 모이질 못해요. 그래도 도서관인데 책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대화도 나누고 개인의 독서력도 향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킴이 선생님들이 인간적으로 끈끈한 모임이 되었으면 해요. 



part.



강북구
마을공동체
참고자료

2018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돌아보기

2018년 상반기

1



2018년 2월 1일
마을아카데미 기초과정
마을공동체 입문자를 위한 기초교육

2

2018
**강북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설명회**

2018년 2월 6일
**강북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설명회**
마을공동체 이해, 강북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안내

3



2018년 3월 28일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31개팀 선정**
다양한 마을살이 의제로 새싹기
공간관계망 사업 총 31개팀 선정

4



2018년 4월 10일
**강북신사유람단
마포구 마을공동체 공간탐방**

5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2018년 4월 30일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
33개팀 선정**
동단위로 일상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
하고자 하는 주민 소모임 33개팀 선정

6



2018년 5월~10월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맞춤형 열린강좌 지원(총 28회)**

7



2018년 6월 18일~21일
**권역별 모임
'너와 나의 뒷주머니'**
상호교류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는 권역별(5개) 모임 진행

8



2018년 6월 29일(변3동)
2018년 8월 9일(삼각산동)
마을계획 마을총회
마을계획단 주민들이 발굴한
마을의제 소개 및 투표



2018년 하반기

9



2018년 7월 18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서로 연대하며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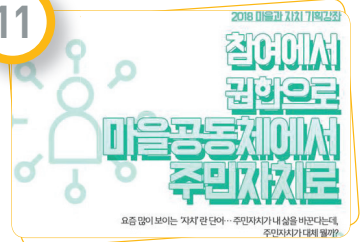
10



2018년 7월 25일~9월 19일 마을아카데미 심화과정

웹자보 만들기, 소모임 운영, 강북구 지역자원, 의사소통 기법

11



2018년 9월 29일~10월 13일 마을과 자치 기획강좌(총 3강)

주민자치 이해를 위한 인문학,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사례 교육

12



2018년 9월 17일~11월 15일 공동체공간학교 '함께 살아남기 대작전'(총6강)

강북구 마을공간 자립을 위한 조직력, 공간기금 및 자산화 교육, 워크숍 진행

13



2018년 10월 22일 마을공동체 어울마당

주민 공연, 체험부스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을공동체 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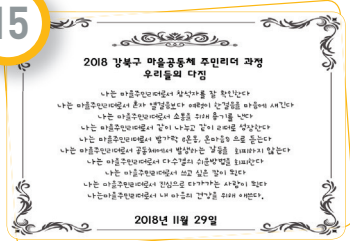
14



강북마을주간 마을여행 진행(총 8개곳)

강북구 곳곳에 있는 마을공간들을 돌아보는 마을여행 코스 운영

15



2018년 11월 8일~29일 주민리더양성 과정(총 8강)

다년차 마을활동 주민 대상으로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진행

16



2018년 12월 5일 마을사업지기 간담회

2018년도 평가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2018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목록



새싹기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1	2018 소통과 나눔이 무르익는 소나무협동마을 가꾸기	소나무협동마을 주민협의체	삼양동 꽃길 가꾸기 마을달력, 마을잔치 등
2	가족이랑 이웃이랑 함께 소통공감 마을만들기	삼각산 재미난 도서관	그림책읽기, 토론, 만들기, 숲 산책 천연 생활재 만들기 등 가족프로그램
3	강북구에서 세워가요, 농공동체!	소보사 대안학교	농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모임, 독서, 요리 등
4	다례체험카페	다례체험카페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 및 알리기 주민 간 교류
5	들썩들썩 숲놀이터 만들기	토닥토닥	아이들과 부모 친목도모 및 공동육아
6	따또(따로 그리고 또 같이)	가족공예 동아리	자녀교육정보공유, 가족공예, 액자제작 발레 스트레칭 등 문화 활동 외
7	마을 그림책 만들기	그림그리는 사이(그사이)	그림책 제작 및 소통
8	마을소리 어울림 음악회	마을소리	음악회를 통한 주민 교류, 음반, 영상 제작
9	몸살림 지구살림	몸지클럽	재능 나눔, 재활용 장터, 동네밥상
10	몸으로 보여주는 책	엄마가 쓰아올린 공연	연극창작과 아이들 대상 연극
11	무지개 마을 만들기	무지개 마을	꽃심기, 환경미화, 화분 키우기, 독거노인 교류
12	벌리에서 만나는 우리역사	강북역사문화연구회	역사를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 발전, 전통문화 체험, 역사연구 활동
13	아빠의 첫걸음 (개굴아빠의 정서적 스킨십)	개굴개굴	부모교육, 천연화장품 만들기, 손뜨개를 통한 부모커뮤니티, 마을 연합 베품시장
14	어린이 바른 먹거리 배움터	마을밥상	건강먹거리 체험활동
15	연극으로 놀아보자	별주부	연극 기초교육 및 무료공연
16	오동나무 합창단	마중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음악체험
17	음악으로 마을주민과 소통하기	기타사랑방	기타 강좌, 미술 강좌, 마을공연, 워크숍
18	자존감 회복을 위한 마음놀이터	맘찾사	좋은맘 도서관을 거점으로 마을 돌봄, 프랑스자수, 목공예, 클레이, 육아정보 공유
19	전통장을 통한 소통장에 불을 밝히자	마중물	전통 장 담그기, 베품시장 판매, 소이박스 향초, 핸드드립커피 수업을 통한 소통
20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콘서트2	포이즈너스	밴드활동, 아동대상 음악체험활동 및 공연
21	춤마들의 악기 배우기	이음줄춤마밴드	악기수업과 음악회, 바자회, 영화보기
22	창의놀이터	놀멍쉬멍	학교나 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 전통놀이 프로그램 제공
23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몸튼튼 마음튼튼 실천모임	무너미 사랑채	숲 탐방, 공동체 견학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 봉제용품 기증
24	함께 크는 아이들	달모임	공동육아, 재능나눔, 베품시장, 마을잔치
25	행복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모임 아름다운 그날을 위하여	장수사진소모임	영정사진 촬영 및 웰다잉 강좌, 장수노트

마을예술 창작소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1	이미지 세탁SHOW	이미지 세탁소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교육 및 제작, 동네 흑백사진 촬영 후 전시 진행
2	밥 먹듯 연주하고, 산책하듯 노래하라	행복한 아빠 모임	난타, 포크 기타, 국악, 합창 등 관내 예술인과 함께하는 발표와 공연 개최

공간관계망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1	2018 우리마을 목공학교	마을목수공작단	목공을 매개로 마을 내 자원순환·청년자립 활동, 마을 수리전, 청소년 목공교육 진행.
2	너와 나 우리의 마을여행 시즌2	밝은맘	팝업북 만들기, 마을장터, 마을잔치(시낭송 대회, 연극, 독서퀴즈) 등
3	마을이 리빙랩이다	우리동네실함실	공정무역커피 공동체 활성화 교육, 웃음운동, 마을소통축제진행
4	마을주민 문화공간 창출	다같이봄	창작시발표, 바느질모임, 천연화장품 만들기, 음악회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문화 공간 창출
5	문화농사 짓는 시장과 마을로 오는 미래	마을엔동네씨	수유시장의 생활중심 공간으로 풍물·목공·바느질 동아리 운영, 봄축제·가을축제, 다락방 공간 개선
6	행복한 마을 만들기	어지나모(어린 새싹을 지키는 나무들의 모임)	독서문화 확대 활동, 기타·뜨개질 동아리, 인근 놀이터에서 이웃과의 교류활동, 마을축제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1	마을에서 행복한 우리아이들	너나들이	숲놀이, 전래놀이 진행, 놀이체험으로 흙놀이, 보드놀이, 엄마와 요리놀이 진행, 영아들을 위한 오감놀이 진행, 캠핑 진행
2	엄마랑 이모랑 오감으로 놀자	엄마랑이모랑	오감활동 계획 및 진행, 오감활동의 연장으로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체험활동, 캠핑 진행, 책임어주기 활동 및 건강한 음식 나눔 활동,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1	마을배움터 수유재 (수많은 배움, 유연한 배움, 재미난 배움)	마을배움터수유재	부모교육, 자녀교육 및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의 배움을 통한 생각 나눔 활동
2	부모와 자녀, 함께하는 역량 강화 교육	함께 크는 엄마와 아이	같은 어린이집 출신 엄마들의 모임으로 지역공동체를 바라보고 돌보는 부모양성교육과 바른 사회공동체의 일원 양성을 위한 자녀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마을에서 엄마 꿈도 쑥쑥, 아이 꿈도 쑥쑥	팔방미인	수유 시장 상인 중심 동네의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부모독서교육과 아이들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숲과 함께 건강하기	삼각산의 기를 품다 (삼기품)	숲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숲놀이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부모 아이 건강 증진 모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1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번동주공5단지	주민잔치(사물놀이, 미니콘서트, 노래자랑, 먹거리잔치)
2	소통, 주민화합을 위한 활성화 사업	SK북한산시티	이웃과 인사나누기 캠페인, 경로잔치, 꽃길조성, 추석명절 송편빚기, 내고장 역사교실
3	화분가꾸기	삼각산아이원	봄, 가을, 겨울 식재가꾸기
4	문화예술공연 및 주민화합잔치	번동주공3단지	문화예술공연 관람, 먹거리 잔치
5	주민화합 축제	번동주공2단지	초청가수 공연, 입주주민 노래자랑, 밸리댄스팀 공연
6	행복나눔 마을이야기	삼각산아이원(임대)	친환경 비누 만들기, 꽃길조성, 국수·송편 만들기, 마을잔치(마을사진전, 베품시장)
7	땡땡!땡땡!자조회입니다	수유현대빌라	현대빌라 생활안내서 제작, 마을밥상, 마을장터

2018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사람

마을을 품다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강북구청

기획편집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강북구청

글·취재 김성덕, 임우택, 박주리, 김홍복, 이영란

디자인·인쇄 정문기획

※본 사례집의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당사자의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사람

마을을 품다 